

四二七九年四月二十二日第三種郵便物認可

# 소학생

3월치



Small circular artist's mark or signature.



아협 발행

★ 76호 ★



350613



# 공일날 아침

## 정인택

집에 있을 때는 글 쓰기에 바쁘고, 그렇지 않으면 늘 밖에 나가 있기 때문에, 좀처럼 이런 한가한 시간을 가질 틈이 없다.

공일날이래서 늦잠을 잤다. 일어나 보니까 해가 높다랗다.

햇볕이 쨍쨍 드는 뒷마루에 걸터앉아 있으려니까, 밖에서 놀던 태선이가 뛰어들어오더니,

“아버지 소학생사에서 사진 찍으러 왔어요.”

한다. 태선이는 내 큰 딸, 승덕국민학교 4학년, “소학생” 애독자다.

나는 세수하기에 바쁘고, 태선이는 제 옷 갈아입기에 바쁘다. “소학생”에 내는 사진이라니까,

저도 같이 찍겠다

는 것이다. 마고자들 입고, 팔장을 끼고 앉았지만 추워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한복을 입고 있을 때의 내 버릇이다.

사진사가 다녀 간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이렇게 햇볕을 쬐이며 앉아 있었다.

봄이다. 비단결 같이 부드러운 햇볕. 바람도 차지를 앓다. 이대로 앉아서 꾸벅꾸벅 졸아 보고 싶은 날씨다. 아무 것도 생각 안하고, 이렇게 냅을 잃고 앉아 있는 순간이 내게는 제일 즐겁다. 그러나 그런 날이 한 달에 한 두 번 있을까, 말까다.

# 소학생

4283년 3월 1일 발행

3월 76호

## 차례

★1919년과 3월 1일……홍중인(8)  
—내가 겪은 3·1운동—  
이희승(9) • 김도태(11)

동요•두뿔골 아이……권태웅(17)  
동요•손님……윤석중•윤극영(35)  
동화•별하나 나하나……김요섭(33)  
동화•영등한 소년……현재덕(4)  
동화•정이의 구름……동원(48)  
○입학 시험은 이렇게……이희복(14)

우리학교를지망하는학생에게(14)  
최복현(사범부속중학) • 김원규(서울중학) • 이훈용(경기상업) • 김중무(경기중학) • 박은혜(경기여중) • 이운용(배화여중) • 김한경(경기공업)

연재 이름없는 별들……정인택(38)  
소설 채석장의 소년……염상섭(20)  
★새로발견된신라증……황수영(30)  
★누가먼저(한글)……조용만(32)  
★단팔수선이야기……진환(37)  
★새공부……윤태영(46)

아협상대기 작문 • 동요 모집(23)

(화보) 3·1운동……(55)  
(화보)즐거울한때……정인택(2)  
새소식……(36) • 소년상식……(21)  
약기만들기……(53) • 이달상라기(43)  
깔깔박사……(40) • 우리들작품(53)  
만도술법사……김의환(45)  
영터리박사……김용환(27)  
화주남이와시계……김동현(18)  
소학생클럽 • 만들고나서……(54)

### ★그림 그리신 분★

정현웅 • 김규택 • 조병덕  
임동은 • 김의환 • 최수섭  
(결장 • 정현웅)



## ☆ 이달의 메모 ☆

- 3월 1일 …독립 선언 기념일 (서기 1919)
- 3월 6일 …경칩(驚蟄=모든 생물이 다시 살아나는 날)
- 3월 18일 …스에즈운하 (運河=불란서 사람 레쎬프가 설계하여 13년만에 완성되었음. (서기 1867))
- 3월 21일 …춘분(春分=해가 적도(赤道) 위를 직사(直射)할 때를 말함.
- 3월 26일 …우리의 안 중근의사가 여순 감옥에서 왜적의 손에 사형이 되었다. (서기 1910)

역사동화

영동한  
영동한

현 재덕  
그림 정현웅



택제 서울 남지(南池) 못 가  
에 영동한 소년 하나가 있었습  
니다.

소년은 못가에 초가 삼간집  
을 짓고, 한 분 어머니를 모시  
고 살았습니다. 매일 들에 나가  
마(풀뿌리의 한 가지로 사람이  
먹는다)를 캐어다 장에 가서 팔  
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마  
를 캐는 소년이라 하여 서동(蓍  
童)이라 이름지어 불렀습니다.  
서동은 사람됨이 슬기롭고 영동  
해서 어려서부터 호걸의 풍모  
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를 캐어 가지고 장  
으로 가는 길에서 이런 이야기  
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선비가 서동의 앞  
을 서 가며 주고 받는 이야기입  
니다.

“그대는 신라 사람이라니 그  
래 그대 나라의 제일 자랑거  
리는 무엇이요?”

“우리 나라 자랑거리야 가지  
가지 많지만 그 중에 사람자  
랑 하나를 하지요.”

하고 그 신라 사람은 빙그레  
웃고

“임금님 제재 따님인 선화공  
주(善花公主)로 말씀하면 나  
이 방편이신데, 마음 고우시  
고 인물 고우시기로 천하 제  
일이시죠. 나이 젊은 화랑들  
은 공주님 얼굴 한 번 보기가  
모두들 소원이지요.”

“사람이 얼마나 잘 생겼으면  
그럴까요?”

“세상에서는 당 나라 양귀비  
를 미인으로 치지만 아마 우  
리 선화공주에게 비하면 양귀  
비도 부끄러워 낯을 들지 못  
하리다.”

뒤에 따라가며 무심하고 그  
이야기를 한 번 듣자, 서동은 웬  
일인지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  
습니다.

선화공주, 영화로운 신라 나  
라 제재 따님 선화공주, 불국사  
있고 다보탑이 있고, 석굴암이  
있는 빛나는 신라 나라. 젊은 화  
랑들이 다루어 우러러보는 선화  
공주, 한 번 보지도 못한 그 아  
릿다운 공주의 모습이 서동의  
머리에서 어른거리며 떠나지 않  
았습니다.

밤에는 동산에 밝은 달 속에

서 아름다운 선화공주가 나타나  
눈에 어른거리었습니다. 별을 보  
면 별 속에서 선화공주가 솟아  
나와 어른거리었습니다.

낮에는 햇빛에서 선화공주가  
빛나게 나타나 어른거리었습니  
다. 고운 꽃을 보면 꽃 속에서  
공주가 나타나 웃었습니다. 아  
름다운 재소리를 들으면 그 속에  
서 공주가 나타나 속삭여렸  
습니다.

마침내, 서동은 그대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아침 머리를 깎아 중의  
모양을 하고 선화공주가 있는  
신라 서울을 향하여 길을 떠났  
습니다.

신라 서울에는 머리를 깎은  
괴상한 소년 하나가 나타나, 이  
상한 노래를 퍼뜨리었습니다.

소년은 바람에 가뜰히 마를  
잡어지고 다니며, 거리거리, 골  
목골목, 어린 아이들을 모았습  
니다. 그리고 등에 짊어진 바  
람에서 마를 꺼내 아이들에게  
노나 주었습니다. 마를 얻어 먹  
는 재미에 어린아이들은 수없  
이 모여 들어, 그 머리 깎은 소  
년이 이르는 곳에는 어린 애들  
이 떼를 지었습니다.

소년은 어린아이들에게 마 하  
나씩을 노나 주고, 이런 노래를  
가르치었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 물레 밤마다  
서동을 보러 가요.”

가르치는 대로 노래를 잘 부  
르는 아이에게는 마 하나씩을

더 주는지라, 아이들은 다투어 이 노래를 읊기어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들 얻어 먹으며 부르는 노래에, 차츰 아이들은 재미를 붙이여 부르게 되었습니다. 차츰 노래는 퍼지기 시작하여 발이 달린듯은 서울 장안을 돌았습니다.

나중에는 노래를 퍼뜨린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이 노래는 방방 곡곡 어린애가 있는 곳이면 소리 높이 불리워졌습니다.

선화공주님은

남 몰래 밤마다

서동을 보러 가요.

너무도 심히 불리워 지는지라 차츰 어른들도 이 노래를 귀담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아녀고 얼굴 잘생기기로 이름 난 선화공주를 두

고 지어진 노래라, 모두 짐작하지 않아 했습니다. 정말로 선화공주가 밤마다 사람의 눈을 숨어가며 서동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닌가 하고, 수근거리기도 하였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문이 조정예까지 알려진 바 되어, 임금님도 크게 근심하였습니다.

신하들도 들고 일어나, 이런 소문은 외람하게도 궁실을 어지럽게 하고, 백성들에게 위엄을 잃게 할 염려가 있으니, 그대로 둘 수 없다 하였습니다. 사실이 있고 없고를 물론하고, 선화공주를 벌 주라 하였습니다.

선화공주는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초에 꿈에도 생각지 못할 억울한 일로 꽃다운 이몸을 더럽히는지라, 매일 울음으

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선화공주가 우리 울고 탄식한다고 누명이 벗어질 리 없었습니다.

마침내 왕은 신하들을 모아 조회를 열고, 선화공주의 운명을 결정 짓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되시는 왕후와, 공주를 모시고 있던 궁녀들은 입을 모아 공주의 결백함을 변명하였으나 소용없었습니다. 공주의 행실이 좋고 나쁘고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공주로 말미암아 소문거리가 되고, 아이들의 노래가 되어 불려지고 하니, 이것을 씻으려면, 공주를 멀리 귀양보냄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드디어 공주는 죄없이 멀려 거칠고 외로운 곳으로 귀양살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왕후는 금지옥엽 같이 귀엽게 기르던 공주를, 하루 아침에 사람 살지 못할 어지고 쓸쓸한 곳으로 혼자 내어 쫓게 되니, 오죽 마음이 언짢았겠습니까? 다만 울며 울며, 무슨 도움이 될까 하여 금한 말을 주어 보냈습니다.

한번도 발바닥에 흙을 묻쳐보지 못하고 귀히 자란 몸이, 다만 푸른 하늘만 멀리 바라보며 수천 리 먼 길을 공주는 외롭게 걸어야 하였습니다.

다리는 지쳐 한 발자국이 어려웠고, 발은 부르려 걸음마다 피가 맺혔습니다. 그러나 몸의 고달픔보다는 마음의 외로움은 더욱 심하였습니다.



어제까지 꽃답고 영화로운 몸으로서 만천하 사람들의 귀여움과 우러림을 받은 몸이, 오늘에는 또한 만천하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몸이 되어 하룻밤의 설 자리를 청함에도 냉정한 대접을 받게 되었으니, 어찌, 마음이 외롭고 쓸쓸하지 않겠습니까?

고개 하나 넘어 눈물ियो, 강 하나 건너 한숨이었습니다.

때는 추석 가까운 가을 철이라, 선선한 바람은 들에 차고 벌레 소리 낮에도 커 광합니다. 호젓한 길 가 잔디에 앉아 쉬고 있는데, 낮모를 머리 깎은 소년 하나가 나타나 공주 앞에 이르더니, 공손히 절을 하며 말하였습니다.

“공주님, 먼 길을 가시기에 얼마나 고달프십니까? 황송하오나 내가 같이 모셔드리겠습니다.”

“말씀은 고마우나, 어찌 어자의 몸으로 모르는 남자와 길을 같이 하겠습니까?”

“증을 남자라고 부리지 않으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니 부리지 않으실 줄 압니다. 사양하지 마시고 종으로 부리어 주십시오.”

공주는 소년이 다정하고 선선하여 믿을만하다 생각하고 짐을 배어주니, 소년은 공주의 짐을 팔아 등에 지고 뒤를 따랐습니

다.

가다가 내를 만나면 소년은 공주를 등에 업어 전내고, 험한 고개를 당하면 손을 잡아 부축하였습니다.

목 마르다 하면 머루랑 딸기랑 산 과실을 따다가 대접하고, 시강하다 하면 활을 쏘아 토끼나 노루를 잡아 굶고, 밤을 주어도 배부르게 하였습니다.

밤에는 패랑이 꽃이랑 들국화랑 따다 자리를 펴고, 다 자란 고사리 잎이랑 꺾어, 하늘을 가



리어 공주로 하여금 편히 잠들게 하였습니다.

공주는 이 알지 못할 머리 깎은 소년이 곁에 있음으로 해서 것처럼 지리하고 고달프던 하룻밤이 즐겁고 다정해 먼 길을 물라 했습니다. 그 길이고생스럽고 육된 귀양살이를 가는 길이 아니라, 좋은 사람과 즐거운 여행을 하는가도 싶어졌습니다.

이제 소년은 공주에게 의지가 되고 도움이 되어 없지 못할사

이가 되었습니다.

하룻 밤, 별 아래 두 사람이 앉아 머리 위에 북두칠성을 가리키며 옛 이야기를 하다가 소년은 물었습니다.

“공주님 내가 뉘 줄 아십니까?”

“뉘 줄은 몰라도 하늘이 나를 불쌍히 보시고 보내주신 사람인 줄 아오.”

“하늘이 내게 공주님이 오게 하신 서동입니다.”

“서동이라니요?”

“예, 내가 바로 서동입니다.”

공주는 놀라 한참 쳐다보더니, 고개를 숙이며 가만히 말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부르던 그 노래가 무심하지 않았구나.”

그리고 공주는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난 것 같이 더욱 정다워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두 사람은 귀양살이를 가던 길을 바꾸어, 서동의 고향 백제 땅 남지 못가를 향하여 걸음을 빨리하였습니다.

고향에 돌아 오자 사람들은 서동이 신라에서 제일가는 미인 선화공주를 데리고 온다 하여, 개신장군처럼 맞이 하였습니다. 더구나 서동의 어머니는, 못 돌아 올 자식이 돌아 온 것 같이 울고 그칠 줄을 몰라하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공주는 서동 앞  
에 일찌기 궁을 나올 때, 어머  
니 왕후가 주신 금 한 말을 내  
어 놓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을 팔아 큰 집을 짓고,  
논 밭을 장만합시다.”

서동은 하찮은 듯이 허허허  
크게 웃으며,

“대관절 그게 뭘데 그러시오  
?”

“이것이 황금이란 거요, 이것  
만 가졌으면 백 년은 부하게  
살 수 있을 것이요.”

서동은 또 웃으며 말하였읍  
니다.

“내 어려서 마를 캐러 다닐  
때 땅바닥에 깔린 것이 전부  
누린 저것입니다.”

공주는 놀라며,

“그말이 정말이요?”

“그럼 정말 아니고.....”

“바로 그것이 천하에 제일 가  
는 보배니 우리는 천하에 제  
일 가는 부자가 되었구려...”

그리고 기뻐 마지않으며,

“지금도 그 있는 곳을 아시  
요?”

“알고 말고.”

“그럼, 그것을 캐어다 진라에  
계신 부왕께도 보내드리었으  
면 어떨까요?”

“그래도 좋지요.”

그래서 그 이튿날 서동은 금  
을 캐어 모으니 황금 언덕을 으  
루어, 눈 부시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용화산(龍華  
山)에 있는 사자사(師子寺) 지  
명 법사(知名法師)의 힘을 빌어



그 금을 진라 부왕에게 보냈읍  
니다.

진라 궁중에서는 이 엄청나게  
많은 금을 보고, 진평왕과 모든  
신하들이 놀라 벌린 입을 다물  
지 못했습니다.

서동은 그 후, 그 금을 가지

고 크게 재산을 만들고, 또 널  
리 인심을 사며 이름을 얻더니,  
마침내 많은 사람이 받들어 위  
에 오르니, 이가 곧 백제 삼설  
대 왕 무왕(武王)이었습니다.

(끝)

## 글 벗 집 새 책 성공한 이들의 소년 시대

四六版美本 책 값 220원 發賣中

유명한 어른들의 소년시대에 일어난 이야기로 동화 보다는  
소설 보다는 재미 있는 것으로만 선택 가지를 추려 모은  
책!

글벗집 책 독말 文章閣 (서울  
장로)

# 1919년과 3월 1일 홍 종 인

## 1

**3월 1일!** 우리 민족의 영광스러운 독립선언(獨立宣言) 기념일은 금년으로써 삼십 일년째 둘을 맞이한다.

생각하면 벌써 아득하기도 하다. 그러나 기억은 더욱 새롭다. 1919년 3월 1일 오후 두서! 이 시각을 기억하여 우리 대한의 하늘에는 가는 곳마다 난데없는 종소리가 드높이 울렸다. 모든 교회당과 절의 종이 미칠 듯이 요란스럽게 소리를 맞추어 울리는 그 시각은, 서울 한복판에서는 과도공원에 수없이 모였던 청년 학생이며 일반 군중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하는 소리가 끝나기가 무섭게, 종로거리로 물밀 듯 밀려 나와 독립만세를 부르며 대극기를 휘날리게 되었던 그 시각이었던 것이다. 이미 시간은 약속되었던 터이라, 동네마다, 예수교, 천도교, 불교 등 각 교회당에 모여서 꼭 같이 독립선언의 식을 지내고 길 가로 쏟아져 나오는 군중은, 벌써 거리마다 걸목이 더질 듯이 차 있었고, 대한독립만세! 자유만세!의 우렁찬 고향 소리는 서울장안을 뒤흔들었다. 아니 서울 뿐이라, 평양도, 대구도, 신위주도, 부산도, 전주, 광주, 목포, 원산, 함흥, 외령 등등, 중요한 도시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이날 오후 두서의 종소리를 기억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일제히 거리로 밀려 나오면서 독립만세를 부르게 되었던 것이니, 이것이 곧 우리 민족의 독립선언 시위운동(示威運動)이었던 것이다.

이 같이 하여 3월 1일 이후로 날을 계속하여, 서울에서는 물론 서골 어느 고을이나 어느 궁벽한 마을에 이르기까지 불결 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시위운동을 일으켰다.

## 2

생각 하면 그때로부터 십 년 전인 1910년 8월 29일로서 저들 일본이 군대의 힘으로 억누르고 또 정부를 농락하여 우리 나라를 빼앗고, 우리 민족을 저들의 노예로 만들고 무수히 압박하면서, 우리 땅의 금은보화는 물론, 우리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모든 악착한 짓을 하는데 참을 수 없었던 울분이 뱃속까지 사모켰다가 터져 나온 것이 곧 독립만세였던 것이다. 민족의 자유, 국가의 독립 없이 저들의 중살이로 어찌 살 수 있을 것이냐. 죽음이냐? 자유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다오! 우리 민족의 최후의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독립이 이루어지는 최후의 일각까지 우리 민족은 일본과 싸워서 빼앗겼던 자유와 독립을 찾아야 한다는 깊은 자각과 굳은 결심에서, 이날 전 민족이 한 마음에서 의치고 있었던 것이다.

독립 선언은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부르짖는 것만이 아니고, 그것이 곧 전 세계 어느 민족 어느 나라에서나 떳떳한 인종의 자유요, 권리였던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빼앗겼던 우리 민족의 자유와 권리를 찾으려고 한다고 하여 우리에게 종이나 칼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군대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떳떳하고 장하고 믿어온 것은 우리가 옳다는 것—정당당한 정의를 가졌다는 것이 곧 우리의 가장 큰 무기였고 끝없는 용기의 샘줄이었다. 가진 것 없는 맨 주먹 뿐, 그러나 그 주먹으로 결코 누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오직 “정의”를 외칠 뿐, 질서 있게 우리 민족의 자유를 찾으려 하자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저 왜적들은 어찌 했던가. 처음에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어찌할 도리를 차리지 못하는 듯도 했으나, 하루 이틀 지나면서 그들의 군대와 경찰은 우리 독립운동을 억압하려고 총과 칼을 들고 나왔다. 빈 손만으로 조금도 누구를 해하려고도 않는 우리 민중에 대하여—노인도 어린이도 부인도 생각하지 않고 총을 함부로 놓고, 칼로 찌르고, 불을 지르고 하여 백주에 길가에 시체가 널리고 피가 땅을 적시는 처참한 광경이 도처에 일어났다. 그러나 죽음이냐? 자유냐? 총칼에 맞아



쓰러지고 잡혀가기를 수 없이 당했건만 끊임 없이 만세소리는 뒤를 이어 일어났고, 마침내 이 만세소리는 전세계 각국에 높이 들리었던 것이다. 아! 과연 살았구나, 우리 민족이 일본의 총검 밑에 아주 죽은 것이 아니었구나!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거룩한 민족 자유의 시위운동! 새로 자라나는 청년대활이어! 복되오라! 이는 우리 민족이 자신을 위하여 외치는 소리 뿐 아니라, 우리 독립운동의 소식을 들은 전세계의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동정에 넘치는 축복이었던 것이다.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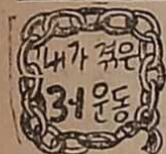
그러면 우리의 독립운동이 1919년 3월 1일을 기약하여 전국적으로 일제히 터져 나오기까지는 어떠한 움직임을 가졌더나? 그리고 우리는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와 아울러 우리 운동이 세계의 새로운 시대의 물결을 타고 일어났던 정세(情勢)를 또한 살펴 피기로 하여, 그 뜻이 얼마나 크고 깊었던가를 다시금 깨달아야 할 것이다.

1910년 우리 나라가 일본에게 빼앗기기까지도 수 많은 우리의 선각자들이 피를 뿌리며, 기울어져가는 나라를 바로 잡으려고 애썼다. 이곳 저 곳에서 일본 군대의 총칼과 싸우기도 했다. 그러나 워낙 그들의 힘이 컸고 잔악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나라는 빼앗겼을지언정, 누구 하나 민족의 양심을 가진 이상 마음이 편할 날이 있을 수 없었다. 기회만 있으면 언제나 우리의 자유와 독립을 찾아야 한다고 울분에 넘치는 피가 가슴에 끓고 있었다. 그 때문에 많은 선각자들이 일본 경찰의 검은 손길을 피하여 만주로 중국으로 미국으로 또 러시아로 많이 망명(亡命)하여, 멀리 고국 산천을 바라보며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민족의 마음은 그대로 살아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 눈치를 알아차린 일본은 우리 나라를 빼앗은 다음 해인 1911년에 또 새로운 흉계를 꾸미어 냈다. 소위 “백오인사건(百五人事件)”이라고 하여, 전국에서 유위험한 인물들을 수 백 명 잡아다가 갖은 악형을 다했다. 그

이유인즉 당시의 조선을 도맡아 가지고 있던 총독, 사내정의(寺內正毅)라는 일본 육군대장을 몰래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사실이 없었던 것이 뒤에 들어났다. 그들은 일본 사람이 우리 선각자를 잡아다가 지독한 악형으로써 일흔을 뽑아 놓겠다는 것 뿐이었다. 그래서 다시 일본에게 반대하고 나라를 찾겠다는 생각을 갖지 못하도록 하려는 잔악한 짓이었던 것이다. 결국 옥중에서 죽고, 또 일부는 놓아 주기도 하여, 나중까지 옥에 남았던 수호가 다섯 분이었다. 그래서 “백오인사건”이라고 했다. 이런 사건도 있어서, 한동안 우리 국내는 그 험악하고 악독한 일본 군대와 경찰의 창검 밑에 큰 숨도 칠 수 없었다. 꼼짝달싹할 수가 없었다.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글을 알아도 쓸 수도 없고, 또 배우고자 해도 저희들이 가르쳐주는 그런 교육 밖에, 널리 지식을 구할 도리도 없었다. 말하자면 그동안 우리는 살았어도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고, 삼천리 강토가 그대로 감옥이나 다름 없는 형편이었다. 이렇게 지

### 내가 겪은 3·1운동



서울 문리과 대학  
교수 이 희 승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3월 1일, 이 날 나라를 잃은지 10년만에 드디어 전국 방방곡곡에서 독립만세소리가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서울에서는 과고다 공원 육각정(六角亭) 앞에 수만의 시민들이 모여, 대화궁(泰和宮)에서

일어나는 만세소리를 가슴을 부등켜안고 긴장한 가운데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이 때 화중에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읽고 독립만세를 부르며 이것에 연달아 과고다 공원에 모인 군중들이 부르짖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바로 그 전 해, 중앙 학교(지금의 중앙중학)를 졸업하고 어느 회사에 취직하고 있던 23세의 청년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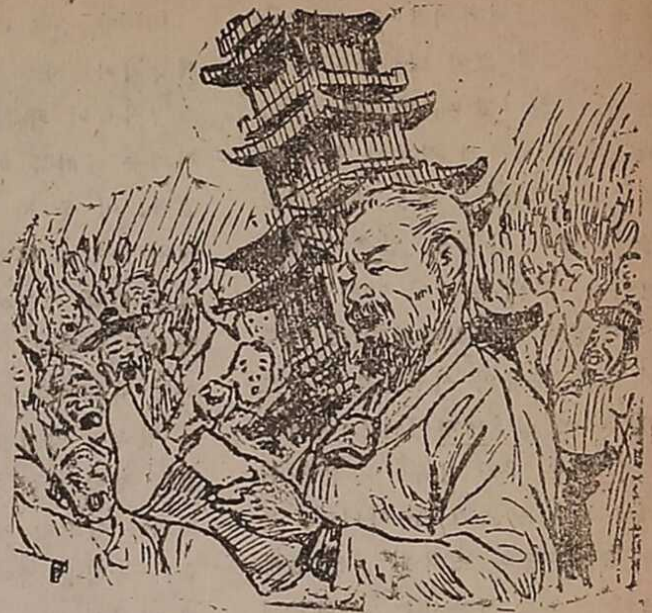
나는 이 날 어느 친구로부터 전화로 이 급보를 듣자마자 과고다 공원으로 갔으나 그 때는 벌써 늦어서 군중은 과고다 공원에 있지 않고, 경복궁으로, 동대문으로, 광화문을 통해서 남대문으로 시위를 개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군중들은 경기 도청에 들어가서 일인 지사를 불러뵈었던 것입니다. 인력거를 타고 도망해 나가

대기를 십 년에, 마침내 참다 못해서 기회를 얻어, 전민족이 일제히 자유와 독립을 외치고 일어난 것이 3월 1일이었다.

**바로** 그 때인즉, 나라를 일본에게 빼앗기게 될 때, 어찌했으면 바로잡아 볼까 하고 애쓰던 임금, 고종황제 (高宗皇帝)가 돌아가셔서, 3월 3일은 그 장례날이었다. 그 때문에 지방에서도 많은 사람이 서울에 모였었고, 또 가엾은 옛 왕이 돌아간 것을 생각하니, 나라가 망하던 그 때를 돌아보아 슬픈 생각이 절로 떠오르며 민심은 자못 비장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러던 때에 장례날을 이틀 앞 두고 3월 1일에는 서울과 지방의 각지에서 고종황제의 제사드리느 추도회를 열자고 하여, 지방마다, 예수교, 불교, 천도교 등 각 교회당에 사람을 모으기로 하고, 우선 추도회를 하고 나서, 그 기회에 뒤를 이어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시위운동을 일으키자 하는 비밀한 계획이 서 있었던 것이다. 그 당시에는 마음대로 많은 사람이 모이지를 못한다는 왜적의 압박이 하도 심했기 때문에, 교회당 같은 곳에

서 겨우 모이게 되었던 사정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이날 3월 1일의 영광스러운 독립선언이 있기까지 또한 가지 명예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여야 할 일이 있었으니, 그는 일본



동경 (東京)에 가서 유학하던 우리 청년학도들이 1918년 겨울에 “조선청년독립당” (朝鮮靑年獨立黨)을 조직하고 그 겨울 동안에 등지를 모으고 독립운동을 일으킬 절차를 비밀히 계획하여, 이듬해인 1919년 2월 8일 동경의 조선기독교청년회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내의 각국에 그 뜻을 전하였던 사실이다. 이 같이 하여 우리 민족이 독립운동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은 벌써 때가 무르익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 4

그러면 이와 같은 독립운동

#### 내가 겪은 3·1운동

려는 지사를 끌어 내리게 하니, 그 일본인 지사는 모자를 벗고 만세를 우리들과 같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지 몰랐습니다.

그 때는 마침 고종황제의 상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세운동이 대규모적으로 나간 것은 그다음날인, 3월 3일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모처에 합숙하고 있다

고 남대문 정거장 (지금의 서울역) 앞에 모였으나, 이 날에야 비로소 우리 민족의 제국을 일본인들이 알고 경계가 매우 심했던 것입니다.

선두자가 인력거를 타고 대구기를 휘날리며 만세소리를 부르짖으며 남대문에까지 다달았으나, 일본인의 기병과 경찰에 부딪쳐서, 그 이상 계속할 수가 없어 그만 일대 수라장을 이루게 되었던

의 기운은 어디서 왔던가. 우리 민족 자신의 깨달음에서 일어났던 저임은 물론이나, 거기에는 전세계에 움직이는 새로운 파동이 또한 컸던 것이다. 즉 1914년에 일어났던 구라파 (유럽)의 전쟁이 도이치, 러시아, 이태, 로이기 등을 동맹국으로 하는 한편과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일본 기타 각국이 합세한 연합국과의 사의에 “세계대전”으로 벌어져서 4년 4개월 동안 싸운 끝에 천 수백만의 사상자를 내이고 도이치가 패하여 전쟁이 끝난 것이 1918년 11월 11일이었다. 이것이

것입니다. 그들은 온갖 무기—칼, 쇠파이프, 몽둥이등을 가지고 나와서, 무기 하나 들지 않은 맨손잡이 군중을 부딪치는 대로 마구 두드렸던 것입니다.

그 후 나는 회사의 등사관을 몰래 빼다가 종이 푸린트 (말하자면 비라입니다)를 만들어서, 이 골목 저 골목에 빠짐 없이 뿌리고 다녔는데, 우리들은 이러기를 약 20일 동안이나 계속하였습니

곧 “제일차세계대전”(보통“일차대전”이라고 한다)인데, 다수한 인명과 재산을 버리고 전 세계가 전쟁 가운데 죽느냐 사느냐 하는 동안, 누구나 생각하기를 하루바삐 전쟁을 끝내고 영원히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하여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때에 가장 세계의 주목을 끌은 훌륭한 의견을 가진 분이 있었으니, 그가 이 때 미국 대통령 우드로우·윌슨이란 분이였다. 그의 의견에 의하면, “일차대전”은 큰 나라들이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 작은 나라, 약한 나라, 아직 발달되지 못한 미개한 나라를 업신여기고 나라를 빼앗고 물자를 제 욕심대로 겁탈하기를 일삼는에서 일어난 큰 나라 사이의 분쟁이었으니, 금후로는 어느 민족이든 각기 민족마다 자기 땅에서 자기 나라를 이루고 살게 하여야 하며, 남이 억압하는가 빼앗는가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민족 각 나라가 자유독립을 하여야 하며, 각 국민이 또한 각각 자유롭게 그리고 서로 도와서 평등스러운 생활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였다. 이

것이 곧 약소민족해방(弱少民族解放)을 뜻하는 민주주의(民主主義)사상을 세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사상은 벌써부터 많이 연구되고 실시도 되어 왔었지만, 미국이 가장 발달된 나라였다. 그래서 윌슨 대통령이 1918년 1월에 이러한 의견을 미국 국회에서 발표하여 세계를 전쟁에서 구해내어야 한다고 했을 때, 전 세계는 그 의견에 대하여 물끓듯이 환영하였던 것이다.

사실 “일차대전”의 깊은 원인은, 강대국이 작은 나라 약한 민족을 서로 빼앗으며 제 욕심만 채우고 있는 동안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생각에서 시작된 싸움이었던 것이다.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구라과의 큰 나라들은 일찍부터 발달하여 구라과 안에서만 작은 나라를 서로 억누르고 살아온 것이 아니라, 동양으로 와서 영국은 150년 전에 3억 5천만이나 되는 인도를 빼앗았고, 화란은 삼백 수십 년 전에 인도네시아를 빼앗았고, 그 후 프랑스는 월남을 빼앗았고, 미국은 필리핀을 빼앗았고, 도이치는 남대평양의 미개인의 섬을 빼앗았고, 러시아

는 동으로 시베리아로 나와 일시 중국의 만주땅에 침로해 들어오는 등, 구라과와 미주 등의 모든 나라는 동양으로 또 아프리카로, 중국에 이르러서는 영국을 위시하여 저마다 빼앗아 먹기를 일삼았다. 영국이 홍콩(香港)을 빼앗은 이래, 구라과의 강대국이 저마다 달려들어 좋은 항구란 모두 빼앗고 자기 나라 물건을 팔아 먹으며 가운 수단을 다해서 중국을 제 땅 같이 주무르고 녹여냈다. 그러는 동안에 일본도 뒤따라서 중국과 싸우고, 러시아와 싸우고 나서 조선을 빼앗고, 또 중국에 손을 뻗치었던 것이다.

이렇게 비참하게도 강한 힘이 약한 것을 잡아 먹는 것을 “약육강식”(弱肉強食)의 제국주의(帝國主義)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제국주의가 강성했던 것을 생각할 때, 과연 윌슨대통령의 의견은 세계평화를 위하여 가장 훌륭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기왕의 강대국도 다시 한번 옛날의 잘못을 깨달아서 잘못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높이 외쳤다. 이 때 누구보다도 은근히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에 피가 끓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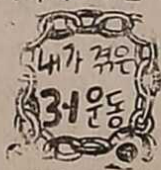
### 내가 겪은 3·1운동

다.

이 우리 동지들의 세포 조직은 아주 밀접하였으며, 우리들은 한결 같이 독립을 위하여 이바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때에는 경비는 전부 안 제홍 선생이 부담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 아니 세계에 영원히 빛날 이 3·1절을 맞이하여, 그 때 내가 겪은 이야기를 몇 마디 하여 여러분과 함께 들

아오는 3·1절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 회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소학생” 편집부 기자가 적은 것입니다)



서울 여자 상업  
교장 김 도 래

나는 그 때 젊은 청년이였다. 그 때 사람들은 나 뿐 아니라 젊은 사람치고는 어떻게 하면 일본 사람들의 악독한 압박을 면해볼

까 하는 생각과 이것을 면하려면 우리는 피를 흘려야 한다, 우리의 하나 밖에 없는 생명도 바쳐야 한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다.

그 때 우리 나라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의 간악한 속임과 위협으로 인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일본 사람들의 칼날이 빛나는 그 밑에서 말 한마디, 글 한 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비참한 세월

을 느낀 것은 제국주의의 희생이 되어 나라를 빼앗기고 수모를 받아 오는 작은 나라, 약한 민족들이었다. 그리하여 전쟁이 끝나고 평화회의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게 될 것이 1919년 1월부터 있었는데, 각국 대표가 그 전해 겨울부터 파리로 모이기 시작하면서, 월슨 미국 대통령도 1918년 12월에 구라파로 건너갔다. 그는 각 곳에서 평화의 천사 같은 환영을 받고 있었다. 온 세계는 자유와 평등의 외침이 높았다. 돈을 자랑하고 권세를 뽐낼 것이 아니다. 서로 서로 개인이나 나라나 각기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서로 도와서 살아야 한다. 빼앗은 땅과 자유는 돌려주어야 할 것이 아니라, 약한 자도 제 권리를 찾아야 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정당하고 떳떳하라.

## 5

바로 이러한 때였다. 일찍부터 조국의 독립을 자나 깨나 잊지 못하고 외국에 망명해 있던 우리의 지도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 이 때였다. 1918년 겨울에는 미국에 망명중이던 이 승만

박사(李承晩)와 안창호 선생(安昌浩) 정한경 박사(鄭翰景)들이 파리평화회의에 한국의 독립을 건의하기 위하여 구라파로 건너가리라는 소식이 일본에 들어왔다. 그 뒤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우리 동포들이 독립운동을 위한 자금을 모집하겠다고 했다. 또 중국 상해(上海)에서는 김규식박사(金奎植)가 “신한청년당(新韓靑年黨)”을 대표하여 파리로 간다고 했다. 이런 소식은 우리 국내에서 도저히 들을 길이 없었다.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 학생들만이 외국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그리하여 이런 소식을 듣고, 우리 독립운동은 마침내 꽃이 피려는 것이로구나 하는 생각이 깊어짐에 일어난 것이 동경의 “조선청년독립당”의 12월 8일 독립선언이요, 3월 1일의 우리 국내의 전국적 독립운동으로 발전했던 것이다. 서로 뜻하지 않은 가운데 맥락이 통했던 것이니, 이것이 세계가 움직이는 큰 물결을 타고 일어섰던 것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뿐이랴.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이 일어난 같은 1919년의 봄은 아세아 민족의 일대 자



## 내가 겪은 3·1운동

을 보았다. 그 뿐 아니라, 나라를 사랑한다든가 민족을 위한다는 사람이 있다 하면, 일본 사람들이 큰 원수 같이 생각하여, 무슨 방법으로든지 붙잡아 가두고 매를 때려 병신을 만들어 버리던 때이니만큼, 누구 한 사람 머리를 들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세계 여러 나라의 큰 싸움이 비터져 5년 동안이나 싸우다가 도이치 편이 먹은 것이 없이지게 되자, 미

국 대통령 월슨이라는 이에게 부탁하여 싸움이 끝난 후에, 세계평화를 위하여 여러 가지 조건을 생각하게 하였다. 월슨은 열네 가지 조건을 제출하였는데, 그 가운데 장차 세계의 영구한 평화를 이루게 하려면, 약소한 민족들을 자주독립 시켜 주어야 한다는 말이 쓰여있다. 이것을 읽은 그때 우리들의 가슴은 매우 흥분되어, 이제 우리는 일어나자, 우리는 일

본 사람과 같이 살 수 없는 터이니, 세계 여러 나라에게 우리들의 사정을 살펴 보아 자주독립시켜 주기를 간절히 구해 보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먼저 일본 서울 동경에서, 우리 나라 학생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대한독립만세를 높이 불렀다. 나는 그때, 서울에 있다가 이 소리를 듣고, 서울에서는 우리 민족의 대표자의 이름으로

각운동이 일어났던 것을 동시에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인도에서도 일찍부터 영국의 악착한 압박에 반항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영국은 일차대전에서 영국을 도와서 싸워준 인도 민족에게 얼마간의 자유를 줄 것 같이 말하고도 모른채하고, 오히려 가혹한 법을 만들어 인도 민족을 억압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간디 옹이 영국에 대하여 인도의 자유를 주장하며 불복종운동(不服從運動)을 일으키어 인도의 전 민족이 점차 이에 합세하게 되었으니, 그 운동을 일으킨 것이 1919년 4월 6일이었고, 이 불복종운동이 일어나자 영국 군대는 아무릿찰이라는 곳에서 군중에게 기관총을 난사하여 단 오분간에 삼천 명의 사상자를 내인 것이 같은 4월중의 일이었다. 이러한 잔인포악한 일이 생기자, 인도 민족의 영국에 대한 반항운동은 더욱 맹렬해졌던 것이다. 또

중국에서도 같은 1919년 5월 4일의 “54운동”이 일어났다. 백년 가까운 세월을 두고 구타과외 강대국이 달려들어 중국의 중요한 이권(利權)을 모두 차지하고

있고, 또 일본이 자주 못 잘게 굴며 만주를 위시하여 각 곳의 권리를 빼앗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도로 찾으려고 하던 데에, 마침 “일차 대전”이 끝나는 파리강화회의에서 그 원한이 풀릴까 했더니, 소위 강대국들은 중국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았다. 그 때문에 전 중국 민족의 울분은 날로 높아가고 있었을 때, 마침 북경(北京)에서 전문 대학생들이 일본에게 팔려다니는 중국 관리 집에 달터가 일본 세력의 압제가 되어 나라를 팔아 먹는 자라고 욕설을 퍼붓고, 돌을 던지는 등 소동이 생기자, 그자는 곧 군대를 불러서 학생들에게 총을 놓게 했다. 이 사실이 발단이 되어 북경의 각 대학생들이 일어선 제국주의 반대와 국권의 완전회복을 외치자 국민은 저마다 이에 화응했다. 이 운동은 불과 일주일, 남으로는 상해, 광둥(廣東)에까지 미쳐 전 중국에 파급했다. 이것이 유명한 중국의 “54운동”으로, 중국 통일혁명운동 중 가장 큰 운동이었으니, 이것이 모두 1919년의 일이요, 또 우리 “3·1운동”의 뒤를 이어서 일어난 커다란 아세

### 내가 겪은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프랑스의 파리에서 열리는 강화회의와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우리의 뜻을 알리우기로 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때에 축하하는 뜻으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되, 그 날 짜는 그 때 고종황제께서 장사 때 문에 서울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은 때를 이용하기로 하여, 3월 1일로 정한 것이다. 나는 처음에 대표자 되실 어른들을 함께

모시도록 하기 위하여, 몇 사람과 의논하고 친하고 대표 손병희 선생과, 예수교 대표 이승훈 선생이 대면하시기를 도모하려고 이승훈 선생을 모셔 왔다. 그 후 두 분 선생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3인의 이름으로 선언서를 만들어 발표하시었다. 나는 3월 1일 과포나공원 앞에 갔다가 일본 헌병에게 매만 일이 맞고 도망갔다가 한 달 후에 상해로 가려

야 민족 각운동의 같은 파동이 었다 할 것이다.

이 외의 아프가니스탄, 에집트 등등의 외국세력의 압박에 대한 민족 자유운동은 모두 우리 3·1 독립선언과 같은 해의 일이다. 브라! 얼마나 정엄하고 우렁찬 민족 해방운동이었던가. 실로 아세아민족의 자각운동의 우리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 독립을 본 우리는 아직 통일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한이나, 그러나 어떻게 일본에게서 해방되고 독립을 보게 된 것은 다름 아닌 21년 전 1919년 3월 1일의 독립선언의 꽃이 열매를 맺은 것이다.

오늘 “제이차대전”이 끝나면서 인도의 독립, 버마의 독립, 필리핀의 독립, 인도네시아의 독립 등의 길로 아세아민족은 지금 날로 광명정대한 자유독립의 새 길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남은 것은 월남의 독립과, 중국의 새로운 통일의 길이 있다고 할 것이니 충심으로 축복하자.

우리 한국의 완전 자유, 통일 독립을! 아세아의 모든 약소민족의 자유독립을! —끝—

고 준비하던 중에 그만 경무총감부 형사에게 붙들려, 33인과 관계 죄인이라 하여, 서대문 감옥으로 끌려가 지방법원에서 예심을 마치고 고등법원에서 내란죄로 심문을 마치고, 보안법 위반으로 지방법원에 다시 돌아왔다가 복심법원에서 판결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관계된 사람이 48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48인 사건이라고도 한다.

## 원 학교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원학  
교를  
지원하  
는 여  
러분  
에게

특집을 드립니다. 올부터는 학제가 변경되어서 학기 초가 달라졌습니다. 우선 오는 5월에 입학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신이 있는 분들 뿐일 줄 믿읍니다. 그러나 과연 모든 준비가 다 되었는지? 그리고 좋은 학교라고 덮어놓고 지원하려는 것이나 아닌지? 여기, 준비하는 여러분을 위하여 자세한 주의와, 그리고 어느 학교에서는 어떤 학생을 특히 골라 뽑는지를, 서울 몇 군데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편집부)

# 입학 시험은 이렇게!

사범 부속 국민 학교 이희복 선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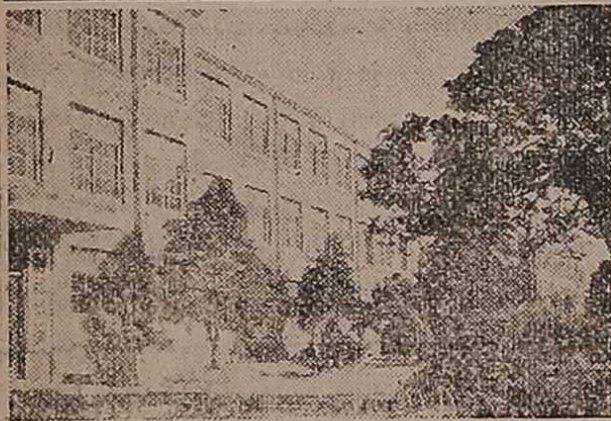
## 1. 입학 시험

입학 시험은 여러분이 국민 학교에서 배운 6년 동안의 모든 성적을 가지고, 더 한 층 높은 학교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치르는 것이므로, 장래의 꽃다운 희망을 이루기 위한, 매우 중요한 것인 동시에, 한 편으로는 매우 즐거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학 시험은, 모두 치르기만 하면 합격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쟁자 가운데서, 우수한 사람만을 뽑는 관계가

있어서, 여기는 반드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 준비는 갑자기 하루나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므로, 매일 매일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인생(人生)의 길이 언제나 그러하듯 준비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입학 시험은 이와 같이, 자기의 한평생을 걱정하는 것이며, 희망을 이루게 되는 것이므로, 일상 하는 그 준비는 괴로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즐거운 것이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고



## 좀 더 과학에 힘쓰자!

서울 사범 대학 부속 중학교  
교장 최복현 선생님 말씀

만드시 이러 이터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결코 아니고 다만 공평한 입장에 서서, 실력 있고 우수한 학생이면 누구나 다 환영합니다. 사범 중학교라고 해도 다른 중학교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으며, 교수요목도 꼭 같습니다. 사범 대학의 부속 중학교라는 명목 아래, 그 대학생들이

적습으로 나올 뿐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사중으로서의 특별한 요구는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어떠한 것을 주로 하여 뽑는가?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 표준이며 목표는, 나라를 부강(富強)하게 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첫째로 과학 공부,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입학 시험에 과학에 관한 문

제만을 내는 것은 아니며, 과학적 사고(科學的思考)를 함으로써 풀 수 있는 문제, 이러한 데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우리 나라 국민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때부터 과학에 관심을 갖도록도, 상급 학교의 이러한 경향에 쫓아서 국민 학교 선생님들의 올바른 과학 지도를 바라는 바울시다.

둘째로 공부만 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몸이 튼튼해야 됩니다. 몸이 튼튼해야만 장래 우리 나라의 두거운 짐을 짊어지고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지는 사범 부속 중학)

계시는 여러분도 싫어 싫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즐겁게 해서, 나머지 날자를 가장 효과 있게 보내야 합니다.

그러면 입학 시험을 치르는 데, 여러분이 꼭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를 말해 보겠습니다.

## 2. 시험치르기 전의 준비

시험치르기 전까지의 준비로는,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무섭지 않다는 실력(實力)을 붙여 놓는 것과, 병(病)에 걸리지 않을 튼튼한 몸과, 이 두 가지로 어떠한 시험이라도 넉넉히 치를 수 있다는 굳센 마음과의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째로 중요한 것은 실력인데, 이것은 학교에서 배운 것을 잘 되풀이해서 기본이 되는 것은, 머리 속에 넣어 두고, 생각하는 힘을 많이 갖도록 해야 합

니다. 그러나 시험이 시작되기 한 달쯤 전부터는 모든 과목을 전부 공부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만 익혀가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몸에 대해서는, 규칙적 생활을 해야 하며, 음식물에 주의해서 병 나지 않게 하는 동시에, 영양에 주의해야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국민 보전 채소를 하는 것은, 몸에도 이롭거니와, 정신도 상쾌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계속함으로써 효과가 있는 것이니까, 적어도 한 달 전부터는 실시를 해야 됩니다.

## 3. 시험 전날의 준비

시험 전날은 유쾌하게 지낸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쾌하다고 해서 너무 심한 운동을 해서 지친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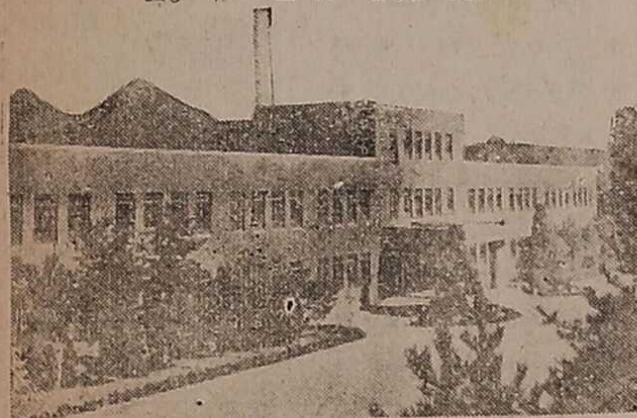
지, 또는 너무 먼 곳으로 놀러가는 것은 몸을 피로하게하므로 좋지 못합니다.

될 수 있으면, 부모님과 같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다는지, 또는 좋은 영화(映畵) 같은 것을 보아서, 마음을 편히 쉬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에는, 늦지 않게, 이른날 일찍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전에는, 내일 시험장에 가지고 갈 물건을 머리맡에 준비해 놓고 자야 합니다. 즉 가장 중요한 수험표(受驗票)는 미리 옷가슴에 달아 놓고, 영수증(領收證)을 가지고 가야 할 때는, 옷주머니에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연필, 지우개, 칼, 각도기, 콤팩스, 수관 같은 것은 보자기에

## 몸도 마음도 깨끗한 학생을!

서울 공립 중학교  
교장 김 원규 선생님 말씀



우리 학교에서는 가정의 빈부 귀천의 차별을 보지 않습니다. 정말로 공부의 열에 타고 있는 학생을 뽑습니다. 집이 없거나, 아버지가 안 계시거나, 혹은 아버지가 짐수레를 끌고 어머니가 콩나물장사를 하거나 아무 상관 없습니다.

특히 수학은 잘 해야 합격됩니다. 다른 과목이 전부 우수하여도 수학 점수가 나쁘면 안됩니다. 우선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택하는 것이 서울 중학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깨끗한 학생을 요구합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몸, 옷, 마음이 깨끗함을 말합니다. 우리 학교 교훈(校訓)에 첫째로 "깨끗하자" 둘째로 "부지런하자" 셋째로 "책임지자"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서울 중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목표를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사건은 서울중학)

## 실업을 존중하자!

경기 공립 상업 중학교  
교장 이 훈 응 선생님 말씀

우리 나라 교육에 있어서, 종래 인문 중학(人文中學)만을 소중히 여겼고 실업 중학(實業中學)은 대만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오는 경

써서 머리맡에 놓아 두고, 그 이튿날 리듬지동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 4. 시험 날의 주의

첫째 시험 날에는 무엇보다도 일찍 일어나도록 합시다. 세수가 끝나면 곧 어제 준비해 두었던 물건이, 틀림 없나를 다시 한 번 조사하고, 아침을 든든히 먹읍시다. 그리고 잊지 말고 변소에 한 번 갔다 오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를 끝마치고 학교로 갈 때에는, 반드시 걸어가도 정한 시간까지는 닿을 수 있는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전차나 버스를 기다리는, 뜻하지 않았던 고장으로 가끔 늦어서, 시험장에 못 들어가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 시골서 시험을 치르러 오는 사람은, 그 날 아침에 오

는 기차가 있어도, 그 전날 와서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지각을 하지 않게 가는 것이 제일입니다.

다음에 복장은 말쑥하게 깨끗한 것이면 그만입니다. 너무 더럽고, 또 해진 것도 좋지 못하지만, 반대로 너무 화려하고 모양만 내는 것도 그리 찬성할 수 없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가장 좋은 것은 국민학교 때의 제복(制服)을 깨끗하게 입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시험장에 닿아서 시간이 있으면, 너무 뛰어 놀지 말고, 담임 선생님과 같이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다가, 종을 치면 정한 자리에 가서 스게 합시다. 여기서 부러는 완전히 자기 혼자서의 모든 행동을 하게 됩니다.

운동장에 섰을 때나, 교실에 들어갔을 때나 항상 자기의 번호를 잊지 말고, 번호를 불리웠을 때는, 명랑하고 큰 소리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되어서 시험 문제를 주며는 주의를 잘 지켜서, 시간이 될 때까지는 펴지 말고, 기다리는데 여기서 다음을 가라앉히게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눈을 감고, 조용한 마음으로 가슴 속에서, 하나 둘 셋 넷...하고 한 철혼까지 세게 합시다. 쓰리는 종이 나면, 우선 번호를 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번호를 쓴 다음에, 문제를 읽을 때는 한 자, 한 자 짝여 가면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잡아서, 답안은 간단하고 확실하게 씁시다. 가끔 문제를 잘 못 읽어서, 얼트 당토 아니

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보아서 결코 실업중학을 경멸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체로 부모들이 자제를 교육시키겠다 하는 목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결국에 있어서 좋은 직업을 택해서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고 있

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교측에서는 장래의 실무자들을 위한 지식과 기초의 연마(鍊磨)도 있지만, 또 그것에 인격수양(人格修養)을 부양시키는 것을 존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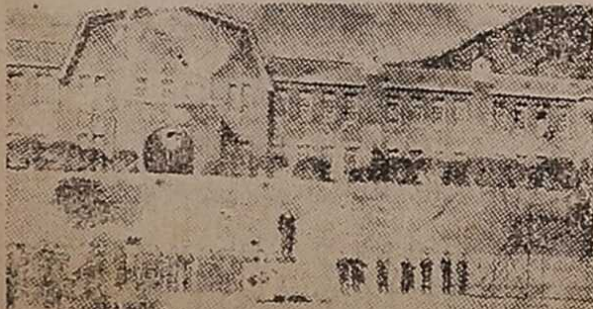
이 학교를 거쳐나와서 많은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급하고 있는데, 상과는

두말할 것도 없고, 문과, 의과, 이공과, 경제과, 법과 등 각 방면에 가서 성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직업교육(職業教育), 즉 근로정신(勤勞精神)을 양성하여서, 사회의 능률을 증가시키는데 중대한 사명이 있다고 봅니다. 어떠한 직업을 갖더라도 말만 으로서는 이 사회를 의지해 나갈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손, 우리의 힘으로써 건전한 사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좋은 예로, 능률지상주의(能率至上主義)를 부르짖는 미국에 있어서 정치가의 대부분이 실업가 출신이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 밑에서, 대한의 장래를 위하여 대한의 힘이 되고 기둥이 될 우수한 학생들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사진은 경기 상업중학)

### 소질 우수하고 환경도 좋아야

경기 공립 중학교

교장 김 중무 선생님 말씀

우리 학교는 중태 전통 이 있는만큼, 소질이 우



한 답안을 쓰는 사람이 많으나, 문제만은 정확하게 읽읍시다. 그리고 얼른 그 답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그 문제는 나중에로 밀고, 쓸 수 있는 문제부터 다 합시다. 문제를 다 하고도 시간이 있으면, 절대로 나가지 말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서 답을 맞춰 보기로 합시다.

시험 답안을 내 놓고는, 너무 지금 시험이 틀렸는지, 맞았는지에 마음을 조릴 것이 아니라, 다음 시험을 치르는 조용한 마음을 기르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간단하지만은 시험치르는 몇 가지 주의를 그치겠습니다.

## 동요 두멧골 애들 권 태 응

두멧골 산 속에 사는 애들은  
산나물 이름도 잘들 알지요.  
봄이 오고 푸르릇 싹이 돋으면  
모두들 정다웁게 나물 뜯지요.

두멧골 산 속에 사는 애들은  
물 맑고 꽃 많아 즐거웁지요.  
강냉이에 감자밥 먹고 자라도  
모두들 사슴처럼 튼튼하지요.



그림·임 동



수하여 장래 발전성이 있는 학생을 요구합니다. 가정 환경도 역시 학업을 완수할만한 조건이 구비해야만 됩니다.

장래의 발전성을 위하여 수리(數理) 방면에 중점을 두어서 사고력(思考力), 추리력(推理力)의 배양을 노코하려고 업

니다. 엄격한 교육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를 주어서 자기 개성을 살려서 충분히 발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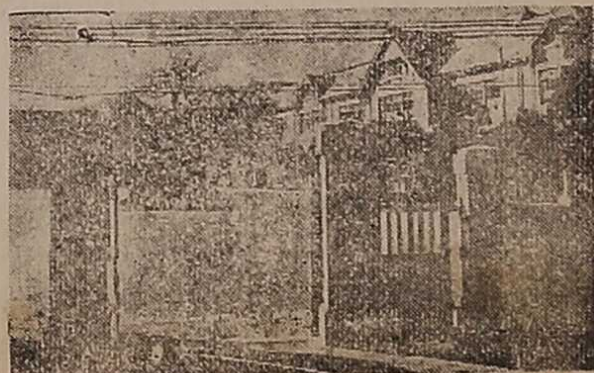
하여간, 명랑하고, 활달하고, 철저한 책임감을 갖도록, 이것이 여러분께 바라는 표어입니다.

(사진은 경기 중학)

## 여성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여성을!

경기 공립 여자 중학교  
교장 박은혜 선생님 말씀

첫째로 머리 좋고 우수한 학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학과에 있어서 전부 다 잘하면 물론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중 어떤 한 과목이 특별나게 우수한 제주가 있어서, 그것만으로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그 재주를 길러주고 완





전한 힘을 붙여 줄 것입니다.

둘째로 몸이 건강한 학생이라야 좋습니다. 여성의 몸이 튼튼해야 국민 전체의 건강이 좋습니다.

셋째로 인격적으로 더 (德) 이 있고 희망있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 학교를 거쳐 나가서 대한

의 여성을 위하여 살아가고, 싸워줄 여성을 요구합니다. 나시 말하면 대한 여성의 "교육" "지위"를 위하여 절대로 남자들은 힘 써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오로지 우리 여성의 열성으로서 완수해야 한다는 각오와 결심이 필요합니다.



사진은 배화 여중.

늘려서 시이 교육의 근본 목적의 하나인 졸업합니다. 이 옮겨 판단하는 힘은 오직 수양을 잘 쌓아서 위대한 인격을 기르고, 다른 사람을 감화시킬 수 있는 비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인격이 없이 한 국가를 구제하기 어려우며, 국가를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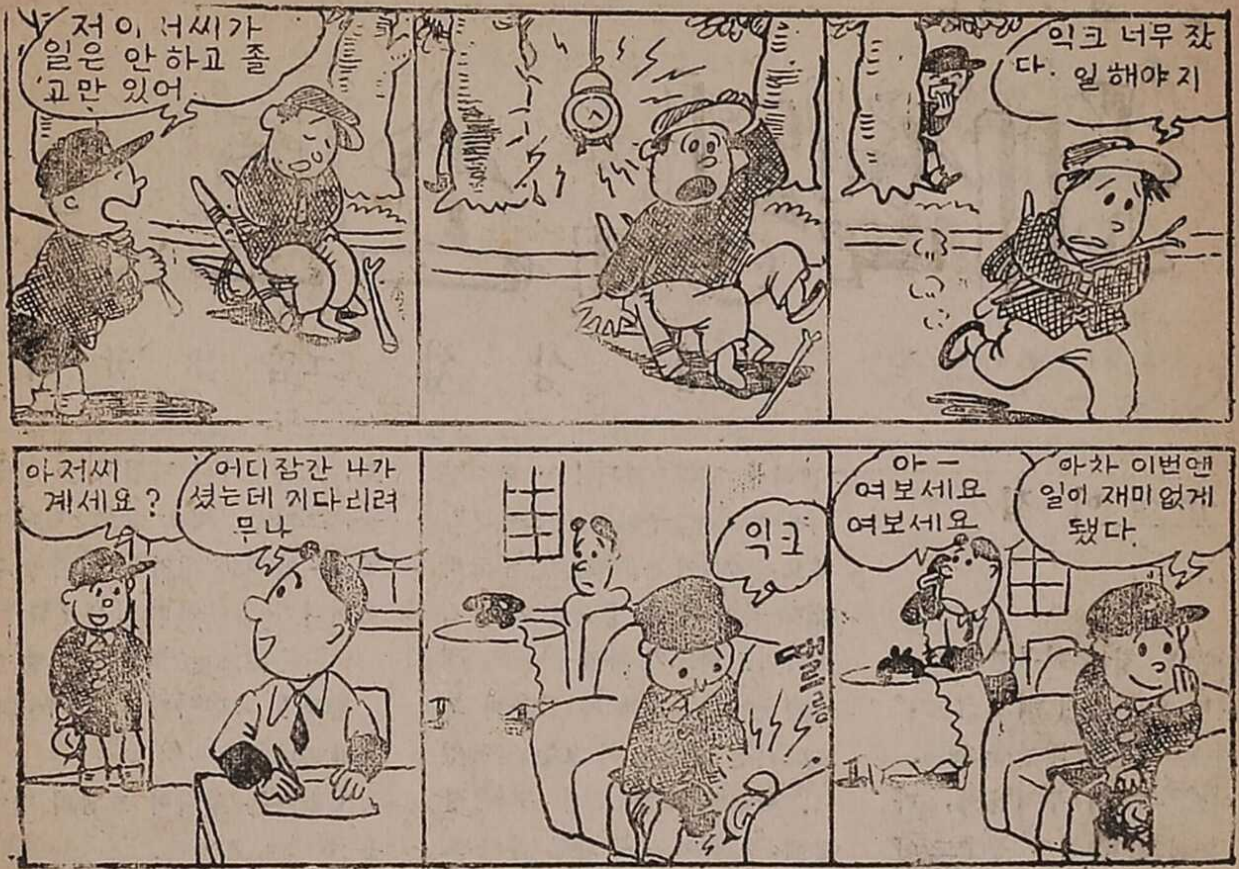
제하지 못하는 국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배화를 찾아오는 소녀들에게 아래와 같은 네 가지 이상을 가진 분을 환영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 (1) 희생적 정신. (2) 나를 이겨내는 생활. (3) 충실한 생활. (4) 공명

### 품행이 단정한 학생을!

배화 여자 중학교 교장 이 운동 선생님 말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을 만



집대한 생활.  
 좀 여러분에게 어렵게  
 들릴는지 모릅니다만

인격을 높이는 것을 첫째  
 로 아는 학생을 반갑게  
 맞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은 앞으로 공  
 업 흥성을 부르짖어야  
 하겠습니까.

기를 제나라의 어린이  
 들에게 부락합니다.

애국(愛國)과 애족(愛  
 族)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술과 창조에 성진하시

## 첫째 몸이 튼튼해야!

경기 공업 중학교

교감 김한경 선생님 말씀

학술 지능에 있어서 우  
 수하고 사상이 건전한  
 밑을직한 학생이 좋습니  
 다.

별로 다른 중학교와 달  
 른 것이 없으나, 우리  
 는 실체의 건강을 제일  
 중요시합니다.

공업 학교에서 시력(視  
 力) 청력(聽力)을 얻

중히 취급하는 것을 전  
 대로 잊어서는 안됩니  
 다. 모든 면에 있어서 문  
 재없이 합격될 학생이 색  
 맹(色盲=물건의 색깔을  
 못알아 보는 것) 때문에  
 불합격 당한 예는 하나  
 클이 아니니, 미리 잘 조  
 사를 받고 지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선생님  
 들의 친절하고 자상하  
 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제는 중학교 입학  
 시험은 어떻게 치러야  
 하며, 자기는 어느 학  
 교를 지망하는 것이  
 좋겠다는 목표들 확실  
 히 세우실 수 있으리  
 라고 믿습니다.

(원집부)

## 여러분의 글을 모집합니다

1. 고생을 이긴 이  
 야기

가난을 벗을, 혹은  
 두렵고 겁난 일을  
 용기로 이긴 이야  
 기가 있으면 1000  
 자 이내로 써서 보  
 내십시오.

2. 우리 자치회 자  
 랑

우리 학교 자치회  
 에서는 어떠한 일  
 을 하고 있습니까?  
 (잘된 작품에는 상을  
 드립니다. 원집부)

# 채석장의 소년

(3)

염상섭 (그림·김규택)

## 규상이 집

1

“봉수야. 함께 가볼까?”

“응! 집에 가서 책보 두구.”

봉수는 선선히 대답을 한다.

영길이의 주먹이 무서워서, 마음이 울찌 갈찌 하던 봉수도 인체는 완전히 규상이의 편이 되어 버렸다.

채석장에서 거리로 빠져나온 두 수년은, 큰길을 건너 뒷거리 에 있는 봉수의 집으로 가서 책가방을 두고, 완식이 집을 찾아 나섰다. 그래도 마음 약한 봉수는 영길이 집 앞을 지나면서, 그놈의 트레바리가 곧 뛰어 나와, 또 무슨 트집이나 부리지 않을까 하는 애가 쩌워서, 영길이 집 문간을 힐금힐금 바라보며 지나쳤다.

“애. 무얼 좀 사다 줘야지? 뭘 좋을구?”

전차길로 빠져나와서 과일 가게 앞을 지나치며, 규상이가 발돋음을 한다.

“그랬으면 좋지만, 애 어디 돈 있니?”

“나두 한푼 없다!... 하지만 집에 가면 누나가 있을까?” 하고, 규상이는 까만 눈을 깜박깜박 하며 무슨 생각을 하는 기색이다. 학교가 가까우니까, 지금쯤 누나도 집에 와 있을찌 모르리라는 대중을 쳐 보는 것이었다. 북위로 받는 오정 위의 별 발에, 두 뺨이 화끈화끈 닳아 오르고 운동모자 밑에서는 구슬땀이 돈다.

“아직두 이런 불별인데, 그 애 그런데 가서 일 안하구, 되레 잘 됐지.”

봉수가 무슨 생각이 났는지 이런 소리를 하니,

“돈두 못벌구, 약값만 쓰구 누웠으면 어떻게 먹구 살디런?”

규상이가 핀잔을 주 듯이 대거리를 한다.

“그는 그렇지! 하지만 어린 애를 학교 앞보내구 그런 고된 별이를 시키다니! 암만 암전해 죄는 어머니지만...”

봉수는 규상이 같은 부잣집 아이가, 그런 어려운 집 사정을 알이주는 것이 회한하다는 생각을 하는 한편에, 아무리 어렵기

로, 오학년이나 다녔다는 아들을, 그러한 데에 끌고 다니며 몇 푼 안되는 별이를 시키는 그 어머니가 잘못이라고 나무랬다. “딩장 굵으면 누구나 그럴 수 밖에! 그 어머니 나무내면 될하니.”

규상이는 완식이 모친의 변명을 해주고 싶었다.

“남산학교를 다니다가 집에 불이 나서 이리 왔다니, 멀어서 못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오죽해야 그 별이를 할라구!”

봉수는 규상이 말이 그럴 듯 싶어 잠자코 말했다.

규상이 집에를 왔다. 꼭 달린 채살문의 옆문을 밀치고 들어서 양관(洋館)을 지나쳐 안채로 들어갔다. 봉수도 따라 들어가 보니 규상이 누나가 벌써 학교에서 돌아와 안방에 있다가 마루로 마중을 나온다.

“누나 돈 있우?”

규상이는 누런 형질 책가방을 놓고 마루에 걸터앉으며 첫대에 묻는다.

“내가 무슨 돈이 있다구!... 근데 왜 그래?”

이번에 여중학교 삼학년이 됐

다는 이 누이는 언제 보나 웃을 상그렁이 깨끗이 입고, 방글방글 웃는 낮이지마는, 오늘은 하얀 내리디지 양복을 허리를 잘록 잘라 매어 입고 뽀얀 팔다리를 시원스럽게 내놓고 있다.

“좀 급히 쓸 데가 있어. 한 이백 원, 아니 삼백 원만 줘.”

“왜? 참외 사 먹으려구?... 어서들 올라와요. 사다 줄게.”

제모 밑에서 자라는 이 남매는, 아무래도 저희끼리 더 의지가 되는 것이요, 인제야 열 일곱 살 먹은 누이가 어머니 대신 노릇을 하는 때가 많다. 잔 돈 푼도 아버지가 안주는 것은 아니지마는, 손 쥐우니 누이를 조르곤한다.

“아냐, 동무를 접때 풍차다가 다쳐 줘는데 앓는데. 그래 지금 우리 둘이 가볼텐데 뭐라도 사다 줄려구.....”

“그래, 좋게, 올라와 어서 점심이나 먹어라. 명순아 점심 차려라.”

건넌방에서 무언지 품질품질하고 있는 밥짓는 제집애에게 소리를 친다. 아버지 어머니는 사철 바깥 양관(洋館)에 거처하고, 뒤편 아이들에게 내주어서, 규상이 남매가 안방을 쓰고, 살림군으로 와 있는 일갓집 마나님이 제집애를 데리고 건넌방에 있을 뿐이니, 아래채는 텅 텅 비어있고 이 넓은 집이 밤이 나 낮이나 절간 같이 조용하다.

더구나 오새는 살림 맡은 마나

## 재미있는 놀이

〈문〉 사대주의(寡大主義)라는 것은 무엇인가?

〈답〉 글자 뜻대로 하면 “큰 것에 섬기는 주의”인데, 국가 민족, 혹은 개인이 그때 형편에 따라 저보다 큰 것에 의지하여 제 몸이 안전하려 드는 것인데 도무지 재 웃대는 없는 것이니까, 엄밀하게 따지자면 주의랄 것도 없습니. 일찍이 우리 나라가 천국을 대국이라 하고, 이에 기대어 살은 것은 사대주의라 아니할 수 없읍니다.

님이 집에 가서 없고, 어머니는 배가 불러서 꼼짝 않고 어린 것과 시원한 양관 속에 누워 있으니 집안이 더한층 쓸쓸하다.

“봉수야 올라와. 점심 먹구 가자.”

규상이는 책보를 들고 마루로 올라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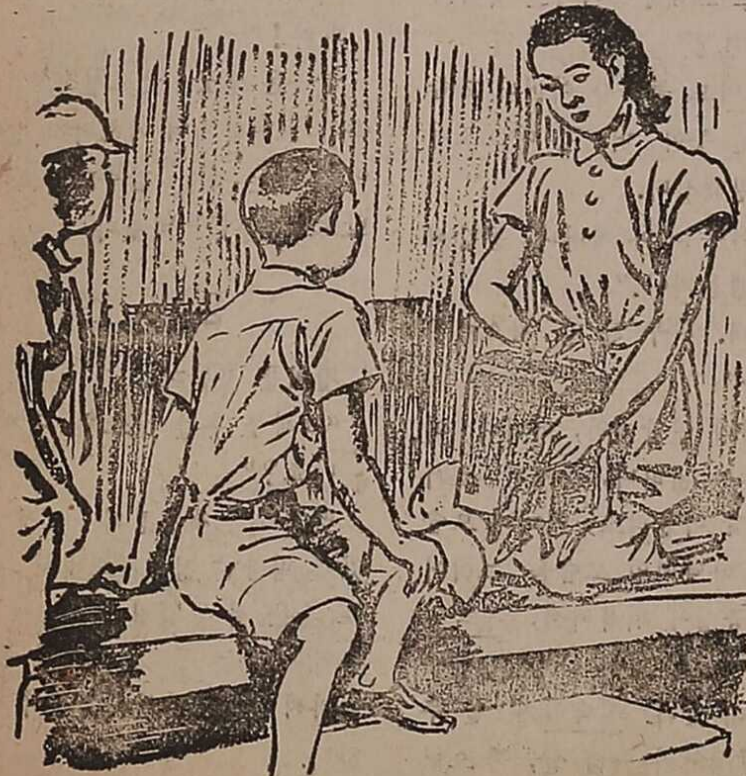
“규상이. 동무두 오구 했으니, 참외 사다 줄까?”

누이는 저도 먹고 싶은 판에, 아까 거위 말~ 꺼냈던 풀이라 또 제풀에 참외 사 주마고 빌론을 한다.

“사 주면 먹지. 이별, 학비, 양이 받은제로군? 한턱 낼다는 수가.”

동생이 안방에서 가방의 책을 꺼내어 책꽂이에 꽂으며 대꾸를 하니가,

“애. 인제 참외두 마지막이란다. 없어지기 전에 많이 먹어



두자.”  
하고 진숙이도 웃음의 소리를 하며, 방으로 들어와 제 책상 선합에서 조그만 지갑을 꺼내 들고 나간다.

“명순아 너 어디루 사려 가니?  
?”

점심을 차리러 내려온 명순이에게 누이가 돈을 주는 것을 보고, 규상이는 뛰어들어 나오며, 소리를 친다.

“요기 나가면 방공굴 집에서 참외 파는 집 있지? 거기 가서 사렴.”

“방공굴은 저 원데요. 거기 어디 참외 가게가 있던가?”

열댓쯤 된 제집아이는 까만 상의 뚱그란 눈을 말뚱히 뜬다.

“왜 하필 그리 가라니? 가까운 단골을 두구.”

누이도 말린다.

“그깰데 개동참외 밖에 더 있겠기에요.”

명순이도 입을 뻗는다.

“우리 동무집야, 좀 팔아 주려구. 잔소리 말구, 거기 가서 가지구 와.”

동무집이란 말에 누이는 잠자코 말았지만, 명순이도 어려운 사람에게 팔아 주겠다는 말눈치를 알아들었는지 다시는 마다고는 안했으나, 그래도 썩 내키지가 않아서,

“홍업다구 나중에 바꿔 오란 말은 말아요.”

하고, 부엌에 들어가 소쿠리를 들고 나간다.

“너의 반(班)아이 집야?”

“아니 학교두 못다니는 애야.”

“아이, 어찌면! 방공굴 속에 살아두 학교에들은 보내는데!”

진숙이도 어린 마음에, 동생의 동무라면서, 학교에도 못다닌다는 말에 딱딱해 한다.

“아버지는 죽었는지, 이복에서 볼들려 못왔는지, 물어봐 두 대답이 없는데, 어머니는 채석장에서 돌을 깨뜨리구 있으니 안그렇겠우.”

“응! 몇 식구나 사는데? 아, 여편네가 이 불별에서 그런 일을 하구 있어?”

하고 진숙이는 또 놀라는 소리를 한다.

“그런데 그이가 친연 우리 어머니 같겠지!”

규상이는 이 말을 한층 더 열심으로 힘을 주어 하는 것이었다.

“응? 그래?...나이는 몇이나 됐는데?”

진숙이도 돌아간 어머니 모습이 불현 듯이 머리에 떠오르며 눈이 환해진다.

“나이두 아마 어머니 동갑쯤 됐을거야.”

“어디. 나두 한 번 봤으면!.....”

어머니 연갑세의, 어머니 비슷한 아낙네라니, 동정과 호기심이 맞 어울리고, 어머니 모습과 그 아낙네의 모습을 그리어 보는 공상이 뒤섞여서, 진숙이는 얼마동안 멍하니 방문 설주에 기대 섰다. 진숙이가 열 두 살, 규상이가 여덟 살, 꼭 오년 전에, 모친은 서른 하나에 돌아

간 것이다. 다섯 해 전 일이 어린 기억에도 어젯일 같아서, 불관한 일에도 무뎛 무뎛 어머니 생각이 나면, 그 모습이 머릿속에 떠 돌고 그리운터라, 어머니 같이 생긴 이가 있다니, 뭐 안 쫓아가보고 싶을까!

“있다, 우리 같이 가봅시다. 병 위문 간다는 데가 바로 거기인데.”

규상이도 누이의 기분에 끌려서 대답이 없이 멀거니 섰으려니까, 북창 문턱에 걸터 앉았던 봉수가 선뜻 대답을 한다.

“응? 그래!”

그 말에 달아서 규상이는, 완식이 모자를 알게 된 내력파, 병 위문이라도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 제 마음을 이야기하여 들려 주었다.

“아, 어찌면! 우리 동생 착하다. 그럼 어서 밥 먹구 가봐라!”

누나는 생긋 웃으면서도 눈속이 뜨거워지며 어리어리 눈물이 고이는 것을 감추느라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 2

참외를 사왔다.

“그래두 흥친 않죠? 냄새가 나죠?”

명순이는 개동참외나 팔을 알았던 방공굴 참외가게에서 의외로 좋은 것이 절린 것을 제 자랑이나 되는 듯이, 조그만 주인아가씨 앞에서 연해 공치사를 한다.

“그래 좋다. 어서 찢어라.”



아 협  
상타기

# 작문과 동요

다섯번째  
대모집

★1년에 한 번 밖에 없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아협”에서는 다섯번째로 여러 분 소학생들의 구슬 같은 작문과 동요(동시)를 모집합니다. 글이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보고 듣고 느낀 그대로를 거짓없이 적으면 그것이 바로 훌륭한 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작품이 많이 나올 것을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풍아 주실 선생님은—장 지영(張志暎)·이 희승(李熙昇)·피 천득(皮千得)·이 병기(李秉岐)·박 영중(朴泳鍾)·윤 석중(尹石重)·조 풍연(趙豊衍)—일곱분입니다.

## ☆알아 두실 것☆

- 자격은 현재 남한에서 국민학교에 다니는 학생이어야 합니다.
- 작품은 소학생이 자기 혼자서 지은 작문과 동요(동시)에 한합니다.
- 제목은 마음대로 하고 길이는 작문에 한하여 1,000자 안으로 써야 합니다.
- 보내시는 작품에는 자기 이름과 나이, 학교 이름과 학년을 똑똑히 적어 보내십시오.

## ★상★

- 1 특등—2명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5,000원
- 2 우등—10명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2,000원
- 3 입선—입선된 분 전부에게 각각 상품과 상금 1,000원
- 4 학교상—훌륭한 작품을 많이 내신 학교에는 따로 학교상을 드리겠습니다.

4283년 2월 1일

## 아 협

- 보내실 곳 서울市 鍾路二街 永保빌딩 兒協懸賞係
- 작품은 되도록 학교에서 모아서 보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감은 4283년 4월 20일까지 도착되도록
- 발표는 4283년 5월 5일 각 신문과 “소학생” 6월 치에.
- 응모 작품은 일체 돌려보내지 않으며, 당선 작품의 판권은 “아협” 소유로 합니다.

진숙이는 방에서 나와서 하나를 들어 말아보고 분별을 한다.  
“그거 보렴. 그런 테라구 개똥참이만 판다구 넘볼게 아냐! 참 그런데 누가 팔구 있던?”  
규상이가 일변 역성을 들며 궁금해서 묻는다.  
“참! 아가씨만한 야쁘장한 제집애가 팔구 있겠지. 방풍 굴이라 해두 퍼 깨끗하구. 가 게터두 지어 놓구요.”  
“으응. 그래!”  
규상이보다도 누이가 앞질러

대주를 하여주고, 씻어 온 참뽕 그릇 앞에 다아앉는다. 조그만 손아귀에 벅차서하며 하나씩 하나씩 골라 벗겨서는, 네 팔에 짜개서 씨를 발리고 하여 양접시에 수북히 담더니,  
“어서들 먹어라.”  
하고 동생에게로 밀어 놓는다. 이런 것을 보면 마치 어머니노릇이나 하는 듯이 모든 거동이 잠잠다.  
진숙이는 또 한 접시를 벗겨서 얹전히 고여 들고 부엌 옆의

누마루를 돌아 양판으로 나간다. 계모에게 가져가는 것이다.  
“어머니 주무세요?”  
발을 느린 아랫층 온돌방 앞에 와서 소리를 내었다.  
“응. 뭐?”  
젊은 음성이 나며, 보던 소설책인지 방바닥에 내던지고 일어나 앉는 기척에, 발을 밀치고 들어서니,  
“그건 뭐야? 웬 군것질틀야? 가게서 또 들여왔겠지?”  
하고 덜 좋은 기색이다. 어머니

타 해도 나이 열 살짜리 밖에 안 되는 젊은 계모는, 대떨어지게 해리를 못하고 반말이다.

“아네요. 내 돈으루 사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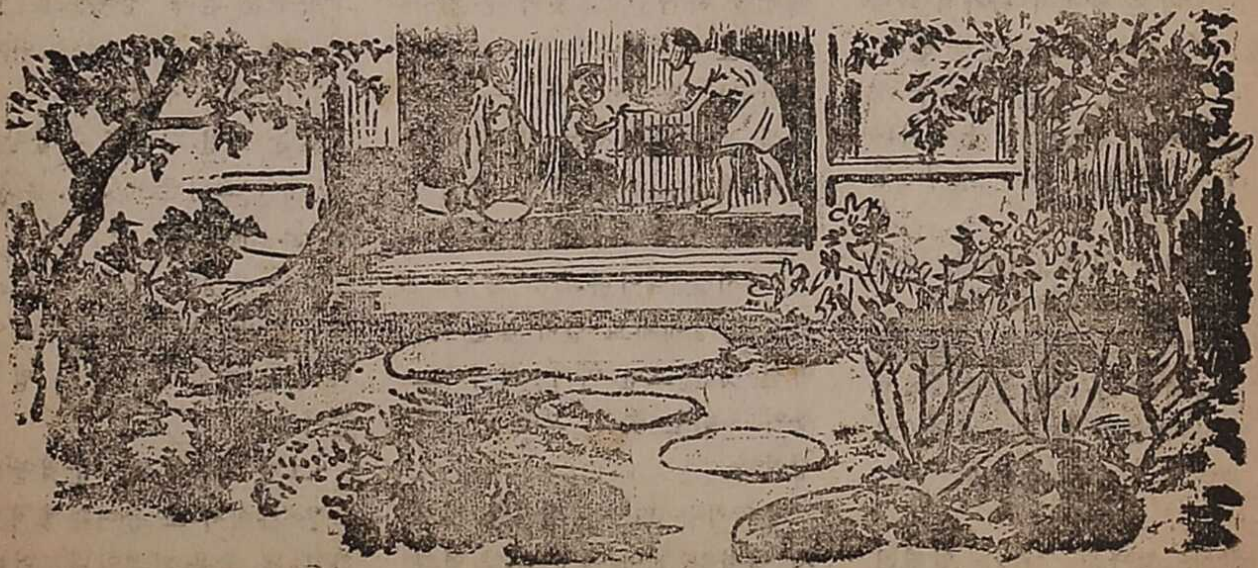
자넨 네 살 짜리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우선 한쪽 들고 난다. 어머니도 목이 마르던 관에 신기는 좋았다. 그보다도 제 돈으로 사왔다는 말에 저뚱하던 눈살이 금시로 펴졌다. 이 젊은 어머니는 별로 해가 있는 것도 아니요, 결코 계모 티를 보아는 것도 아니니만큼 아이들에게는 편한 점도 많고, 의가 상할 일도 없이 비교적 원만한 셈이다. 그러나 힘을 찾자면 인색한 편이라는 것이다. 그 인색도 남편이 쓰는 것을 총칼을 하거나, 아이들이 돈을 타다가 쓰는 데에 아랑곳을 한다든지, 살림에 알뜰하다든지 한 것이 아니라 다만 한가지 자기가 남편에게서 타내는 돈이 한푼이라도 축이 날까 보아 애를 벌벌 떠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 반찬 가게에서 의상으로 군것질을 했을까 보아서 사살을 했던 것이지마는, 그렇지만 앓다면야, 결국에 누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거나 또 얼마를 쓰거나 아랑곳을 안하려 한다. 그런 것을 보면 원체 살림을 모르기도 하지마는, 실상은 욕심이 없는 사람이다. 다만 자기와 네 살 짜리 아이만 편안히 앉혀두고 칼 입히고 먹여 주면 그똥 일은 간섭도 하기 싫다는 성미다. 그러나 한 달에 삼만원 타내는 가용만은 꼭 쥐고 놓여지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아침저녁으로 조끼차를 해서 내놓는 찬용(饌用)이 빠듯하니, 자연 가게에 의상도 지게 되고, 아이들이 입이 궁금한 때면 어머니를 조를 수도 없고 용돈을 일일이 타낼 수도 없는 사정이라, 손 쥐우니 앞 가게에서 들여다 먹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계모에게는 이것이 질색이었다. 삼만원이나 타내면서 그 무리구력을 안히는 수도 없고 아

주 군것질을 막는 수도 없어서, 틈틈이 나무리는 끝에,

“먹구 싶건 내게 말을 하구 돈을 타다가 사 먹으렴.”

하고 일러도 막무가내다. 어머니더러 돈 달라고 손 버리는 버릇도 없거니와, 그러는 아이들만을 나무랄 수도 없었다. 그 점이 역시 계모라 해서 그런 것 같고, 아이들도 쓸쓸해 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새어머니와 아이들 사이의 충돌이 있다면 이런 정도의 것 밖에 없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정을 생각하면, 그것도 실상은 인색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본갓집 살림의 발은 그 삼만원 축에서 뽑아 배야하겠으니 왜 안그러랴. 오십이 넘은 아버지는 별 재주 없고, 학교에 다니는 두 동생을 데리고 절절매는 어머니 생각을 하면, 십원 한 장을 쥐고 손에 땀이 나도록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는 새 어머니의 형편이었다. 남편이 매삭 쌀 한 가마니씩 꼭꼭 보내는 외에 두 처남의 학비가





지 말았으니. 아무키 의가 좋은 내버기로 더 입을 버릴 염의가 없었다. 그러나 쌀 한 가마니가 백전치 않은 것이 아니로되, 그것만으로는 본가의 네 식구가 사는 수가 없다. 결계 말할 것 없이 그 삼만 원이 두 점의 용돈이니, 절약을 안할 수가 없고, 그 내평을 알고 보면, 이 어머니가 인색하다고 하기커녕, 부모에게 무뎠다고 칭찬을 해야 옳을 일이다. 사실 진숙이나 규상이나 그런 내평은 모르지마는, 새어머니를 인색하다고 별명을 짓거나 입을 비죽하는 그런 못된 버릇은 없었다. 다만 굳이정질이 하고 싶을 때 뉘게 사 달라고 응석을 할 데가 없어 서운하고 쓸쓸할 따름이었다. 그러나 그대신 계모도 자기 친정 부모를 끔찍히 생각하느니만큼, 진숙이 남매가 돌아간 어머니를 생각하고, 시름없어 하는 눈치를 보아도 싫어하기는커녕, 도리어 기없이 여기는 것이요 그런 때면 넉지시 과자고 무엇이고 사다가 놓고, 양판으로 데려다가, 피아노를 치며 노래도 시키고, 자기가 본 책 이야기도 들려주며, 은근히 위르륵하여 주곤 하는 것이었다.

“오늘은 할머니 오시겠지?”

세죽째 참의를 들며 어머니가 말을 붙인다.

“클쎄요. 캐니 나가서 가지구 ..... 더 더치시지나 앉았는 쥬.”

할머니란 살림 말은 전년방 타나님 말이다. 남편의 들썩이

모치마는, 이 다님이 외손주의 백일이라고 왕십리 딸의 집에 갔다가, 더위와 체기(滯氣)에 눌려서 벌써 일주일이나 못들어 오고 딸의 집에 누워 있는 것이다. 그저께 사위가 와서 한 사흘 있으면 일어나 들어 오지게 되리라고 기별을 하고 갔던 것이다.

“은 이놈의 성화에!”

아홉달을 잡아 드는 큰 배를 안고, 긴긴해에 한참 버르적 대는 아이와 찌름하기가 괴로워서 마님이 어서 돌아오기만 기다리는 것이다. 마님이 있어야 아이 번보다도 종일 어린 것을 잘 데리고 놀아 주고, 아침 저녁 남편의 밤상도 절변절변하여 지는 것이었다. 첫째 성이 가실 것은 마님이 없는 동안은 끼니때 부엌에 들어가 보아야 하겠는데, 자기가 도마를 맡은들 원체 솜씨가 없고 보니 애는 애대로 쓰고 본때가 나지를 않아서 싫은 것이요, 모든 것을 쓸어 막기는 버릇이 생긴 것이다.

“누나 따라 나가서, 혼자 좀 놀렴.”

어머니는 참의 그릇을 밀어 놓고, 보던 책을 들며 또 다시 누울 차비를 차린다. 앉은 키만 보아도 훌쩍 크고, 기름한 희멀금한 상에, 둥그런 눈이, 기운풀이 있어 보이지 않고, 워낙 허한 편인데다가, 벌써 어깨로 숨을 설지경이니, 삼복을 나느라고 지치기도 한 모양이다. 그러나 화초밭과 수목이 있는 뒤마당을 받고 앉은 이 방은 이



(문) 우표(郵票)와 인지(印紙)는 어떻게 다른가?

(답) 우표는 정부가 사람의 편지나 소포 같은 것을 배달하는 값을 부치는 사람에게서 받을 때 돈 대신 받는 표입니다. 인지는 정부가 세금이나 그 밖의 온갖 국가 수입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만든 증표로서 우표와는 그 성질이 다르므로, 인지를 우표 대신 써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표는 반드시 우편국의 소인(消印)으로만 소인하여야 하며, 우편물을 내는 사람이 소인할 수는 없는데 인지를 쓰는 사람이 필요한 문서에 인지를 붙이고 자기의 도장이나 서명으로 소인할 수 있는 점이 다릅니다.

집 중에서도 제일 서늘하다. 활짝 열어 젖혀놓은 창문의 “카아 툼”이 푸푸를 날리면서 선들한 바람이 불려 들어온다. 쟁한 별발을, 이글 이글 받은 화초밭에 서는 갖 나온 잠자리가 분주히 오락가락할 뿐이다. 종용하니 한가롭다.

## 세 동 무

### 1

명준이에게 길을 배운대로 큰 거리에서, 깎다가 둔 언덕을 바라보며 오른쪽으로 굽드리니 이



쪽은 새집이 쪽 늘어섰고, 맞은 편은 얇막한 돌 산이 평풍같이 쪽 뻗어 나갔다.

“애. 저기구나?”

봉수가 소리를 친다. 채 중턱에도 못가서, 참외 원두막 같은 것이 냇칸통쯤 떨어져서 건너다 보인다. 깎아질린 허연 돌 산 밑에는, 눈사람에 까만 눈을 꼭 찢러 놓은 듯한 구멍이 너더땃 뿡뿡 뚫어져 있고, 굴마다 옆으로는 벌겍게 녹이 쓴 연통이 뻗혔고, 기저기니 훑이불 조각이 너저분히 널려있다. 원두막 같은 데로 규상이 일행은 가까이 왔다. 사람이 한 두엇은 편히 누울 수 있을만한 시령을 땀, 그 아래에 사랑부스러기를 늘어놓은 구멍가게인데, 앞에는 참

외 무테기가 명석 위에 수두룩히 널려있다.

“여기 김 완식이라구 있죠?”

규상은 참외 명석 앞에 딱 서며 저 뒤 그늘에 사과 껍질 같은 것을 모로 놓고 걸터 앉았다가, 꼬맹이 단골손님이 무엇을 사러 온줄 알고 반색을 하며 내닫는 처녀아이에게 돌었다.

“그래. 왜?”

벌써 동생이나 어머니에게 들른 말이 있어, 짐작이 나는지, 눈을 말뚱히 뜨고 입가에는 약간 웃음빛까지 떠오른다. 모자는 벌에 그을어서 그렇게 까만데, 이 계집아이는 살기없는 말은 상이지만 하얀 얼굴이다. 어머니 닮아 동생 비슷하니, 명순의 말따따나 이쁘장스러운 규상

이 누이만한 처녀다.

“어뵈세요?”

“앉아 뵈어. 가만 있어, 불티 줄게.”

아이들이 대지르고 굴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가거나 들여다 보아서는 창피하다는 생각에 팔려서, 몸으로는 아이들 앞을 가로막고 서며, 굴 속을 돌아다 보고,

“완식아 누구 왔다.”

하고 소리를 친다. 안에서는 대답이 없다.

“대단하진 않아요? 나올 수 없어요?”

“응. 인젠 좀 났어.”

하고 계집애가 굴로 한결음 닦아 서며, 동생을 다시 불으니까, 완식이는,

“웨 그래?”

하고 굴 밖으로 나서다가, 짹짹 놀라서, 앓고난 쾅한 눈이 더 뚱그래지며, 두 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섰다.

“어떠냐? 우리 너 어머니께 가서 집을 배 가지구 오는 길이다.”

“응. ....인젠 괜찮어.”

완식이의 얼굴에서는 경계하는 듯하고 창피스러워하는 듯한 긴장한 낫빛이 풀리고, 비로소 반가워하는 기색이 떠올랐다.

“놀러 나가자.”

규상이가 끌어 보았다. 누이에게서 얻은 삼백 원이 있으니, 데리고 나가서 “아이스크림”이든지 저 좋아하는 것을 사 줄까? 그렇지 않으면 저의 집에서 참외를 파니 그것을 사서 같이

먹을까?—이러한 궁리가 있는 것이었다.

“난 싫어, 이렇게 찾아와 주어서 고맙다.”

완식은 들어 앉칠 데도 없고, 창피스러운 생각에, 고맙기는 하나 어서들 기주기를 바라지는 기색이었다.

“아직두 얼굴이 벌겋구나. 여기들 좀 앉으렴.”

누이는 동생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굴 안으로 들어가서 조그만 평상을 들고 나와서, 자기가 앉았던 껌작 앞에 놓는다. 아이들은 마주 갈라 앉고, 누이는 가게 안 참외 명석으로 가서 행길을 등을 지고 앉았다.

앉아서 자세 보니 안팎을 말짱히 쓸고, 굴 안은 킁킁하지만 문 밀게 한편 구석으로 걸어 놓은 솔이 반질반질하게 걸이 든 것이라든지, 그런대로 살림이 조촐하고 앙그러져 보였다. 제 집애도 검정 짜른 치마에 미영 적삼이나마 새로 빨아 대린 것을 입었지마는, 완식이 역시 저번에 처음 만났을 때보다는 깨끗한 “노라이샤쓰”에 잠방이를 입었다. 다만 신발만은 그 껌진 운동화를 끌고 있다.

—다락에 있는 그 운동화를 갖다가 줄걸!.....

규상의 머리에 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저번에 완식이하고 헤어져서 집으로 가며 다락 속에서 덩구는 새 운동화 짝이 생각나서 그것을 갖다 줄까 하는 공상을 했던 것이나, 그 후에는 잊어 버렸었다.

“병이나 났으면 어서 학교엘 가야지.”

마주 앉으니 별로 이야기거리도 없어서 규상은 자연 학교 걱정을 해주는 것이었다.

“응! 인제 가지.”

완식이 무슨 굶은 결심이나 있는 듯이, 분연히 눈을 치뜨며 입술에 힘을 주어 대꾸를 하자니, 누이가 뒤달아서,

“이리 전학시키려구 돈을 모는 중이란다. 겨울방학까지 벌면 내년 봄학기부터는 보내게 되겠지, 일년 묵는게 아깝지만...”

하고 완식이 지난 한 학기동안 학교를 못가고 말은 것이 제 잘못이 아니라는 변명을 말도 또랑또랑히 열심으로 하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리 옴아 와서두 그

추위에 외투 하나 없이, 어떤 때는 전착샷두 없어서 눈보라 치는 신새벽에 일어나서, 짹 짹 미끄러지는 빙판에도 그 남산 꼭대기를 걸어서 다녔거던! 학교라면 기를 쓰구 다니던 쟈데, 그러다가 겨울방학 전에 시험두 못보구 터앉아 누우니 이걸 어찌나! 거진 한 달만에 죽다 살아나구, 개릭은 다시 했지만 비슬 거리는 아이더러 어떻게 그 먼테를 다니랄 수가 있어야지.....”

이야기를 하던 완식이 누이는 지난 한겨울의 고생과 죽다 살아난 동생이 가엾은 생각이와 락 치밀어서 눈물이 핑 돌았다. 이 어린 처녀의 얼굴만 쳐다보며 이야기를 열심히 들던 세 아이는 똑 같이 눈 축이 뜨거워져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말았다.

남산 옆의 예전에는 서울서도 손꼽던 일본요리집을 전제민에게 개방하게 되어 삼초방 한 간을 얻어 들었던 것이나, 별안간 불이 나자, 엄동에 알몸둥이로 겨우 이부자리 한 채들 전저

## 엉터리 박사

김용환



가지고 쫓겨나서 거리에 앉게 되니, 여기에 이런 방공굴이 있는 줄이나 알고, 설마 이런 새 신세를 질 줄이야 꿈에나 생각하였으랴마는, 지금도 요위 굴 속에서 사는 안서방이 어떻게 수 소문해서 알았는지 당장 발견해 가지고 와서,

“완식이네 두 같이 가십시다.

삼동만 꿈쩍 참고 나면, 차차 또 도리가 나서겠쇼. 첫째 세 절 굴으니 좋구, 나가라 들어 오너리는 말 없어 좋구...”

하며 권하는 바람에, 당장 거리에 앉았는 것보다는 나오니 쫓아 왔던 것이지만, 그 첫 희생으로 기둥 같이 믿는 외아들 완식이를 죽일번하던 생각을 하면, 어머니는 몸서리가 쳐져서,  
“애, 완식아 공부두 중하지만 목숨이 있고서 공부지, 인제 여기 학교루 옮겨 출제 몸조리나 잘하구 가만 있거라.”

고 달래고 라일러서, 날마다 학교를 간다고 보채고 빗썩을 하던 완식이를 또 한 달이나 놀렸던 것이다. 그 덕에 긴 병을 치르고 난 완식이의 몸은, 다시 덧치지 않고 완결하여 지기는 하였다. 그러나 오학년 들어서는 한참 공부가 세우고 경쟁이 심해졌는데, 지난 학기 시험도 못보고 방학은 끼였었다 하더라도 두 달 넘어를 빠져서 공부가 밀리고 보니, 성력 구러기인 완식이로서는, 학교가 멀어서 전학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뒤떨어진 공부가 걱정이 되어, 일론 새 학교를 가서 밀린 공부를 회복



하겠다는 작정으로 틈틈이 집에서 어머니에게 물어가며 자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학교를 옮기자니 새 학년까지 참으라는 것이요, 그것은 고사하고 돈을 만 원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자, 어머니는 기가 차서 말이 아니나왔고, 완식이는 철없이 어머니를 조를 수도 없어 눈치만 보고 있던 것이다. 그러나 만 원이란 큰 돈이 어디서 생길까? 한 달에 이천원씩 다섯 달만 벌어 모으면 되겠다는 큰 결심을 하고 어머니를 따라나설 때가 채석장이었다. 심월부러 나셔서 빗썩 처음 작정할 다섯

달이 넘고 반년이 되전마는, 먹고 살아야 하니 겨우 모은 돈이라고는 오천 원 밖에 안된다고 한다.

“오천 원 있으면 그결루 이번엔 전학을 할일이지, 뭇뎠에만 원램이 들어요?”

봉수가 탄하듯이 묻는다.

“입학금, 월사금, 그 밖에 처음 들어 가자면 기부금두 있구...”

완식이 누나가 설명을 하려니까,

“기부금은 못내겠다구 떼를 썩보지 않구... 그해 완식이가 들 게드려 번 돈, 기부 받아가지구 우리가 공부하더라 말

인가!”

하고, 규상이 분개를 한다.  
“하지만 규측인걸! 남 다하는 규측은 지켜야지. 우선 내가 가 앉을 책상을 만들잖은 내가 들여 놓구 가야 옳지 않어?”

이때까지 텅텅히 앉았던 완식이가 불쑥 이렇게 대꾸를 한다. 두 아이는 잠자코 완식이의 얼굴만 치어다 보며, 매우 감동한 낮빛으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었다.

“그래! 네 말이 옳다! 네 생각이 참 좋다! 그러나 돈 없다구 공부 못할 수야 있니! 더구나 그런 좋은 맘씨를 가진 너 같은 애가!...”

규상이는 또 다시 두 눈이 글썽하여졌다.

“하지만 내가 왜 공부를 못하겠니, 어차피 일년 묵게 됐으니, 내년 봄학기에 가면 똑 알맞게 되거든, 이번 학기에 간됐자, 난 다 아는 것인데, 없는 돈 쓰구 두번씩 뺄 것 뭐 있니, 그동안 돈이나 더 벌 어가지구 내년에 너희들하구 한 판이 되면 좀 좋겠니.”

완식이는 고생을 한 아이니만큼 생각이 더 깊고 잠잠하다.

“그래, 잘됐다. 어서 내년이 돼서 같이 공부하자.”

봉수가 비로소 웃는 명랑한 낮빛이 되었다.

“완식이가 맘 좋다지만, 참 너희들 맘 좋구나! 이런 좋은 동무가 생겨서 완식이 좀 좋

누이가 두 아이를 칭찬해 주었다. 아이들은 껄껄 웃고 말았다. 유쾌하였다. 유쾌한 김에, 규상이는 가지고 온 돈 삼백 원을 내놓고 참외를 달라 하여 넷이 깎아 먹고 싶은 생각도 들었으나, 길거리에 앉아서 먹기가 싫어 그만 두어버렸다.

세 시쯤의 피약별은 차츰차츰 가게 속으로 기어 들고 규상이들이 앉은 등 뒤로도 울려왔다.

“무슨 더위가 아적두 날마다 왜 이렇게 못살게 구누.”

하고 누이가 군소리를 하며 일어나서, 서향관으로 받는 벌을 막느라고, 시렁 위에 말아 엮은 멍석을 내려 친다.

“말 말어, 여기 앉아서두 더웁다구? 채석장엘 가 봐!”

완식이가 탄하는 이 말에, 누이는 어머니 생각이 나서 꿈쩍하였다. 두 아이도 그 아낙네 생각에 잠자코 있다자 일어서며, 규상이가,

“그 참외 얼마씩요?”

하고 물었다.

“글썽...한 개에 육십 원씩이지만 너희가 가져갈다면 백 원에 둘 주지.”

하며, 완식이 누이가 생글 웃는다.

“삼백 원어치만 좋은 절루 팔라 주우.”

하고 규상이는 바지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완식 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따 가지구 가려구?”

“소쿠리 없우? 아무때나 달아줘요. 우리 집이 조기니까

그릇은 곧 보낼께.”

완식이 누나는 일년감이 탐견 소쿠리를 들어 끌고, 거기다가 참외를 골라서 여섯 개나 수복히 담는다.

“봉수야 가져. 완식이 잘 있어! 내 또 올께.”

“규상어는 인사를 하고 참외 소쿠리를 힘히 찰 듯이 번쩍 든다.

“소쿠리 곧 보내줘요.”

완식이 누나가 다진다.

“네, 염려 말어요.”

규상이는 웃으며 참외 소쿠리를 들고 나더니, 발길을 밥공굴로 돌쳐서 문턱에 쑥 들여놓고는 나는 듯이 훌쩍 뛰어나오면서,

“무어 맛있는 거 사다 줄께 없어 어쨌 뿐이다. 잘 있거라.”

하고 소리를 친다. 거리로 나서서 가말히 바라보던 봉수가 하하하 하고 웃자니까 완식이는 깜짝 놀라서 내달으며,

“난 안먹는다. 가지구가!”

하고 뒤에서 쫓아 온다.

누이는 얼어 빠져, 생그레 웃으며 멀어져 가는 두 아이의 뒷모양만 바라보고 섰다.

“너, 수단 좋구나.”

어만큼 오다가 봉수가 동무를 칭찬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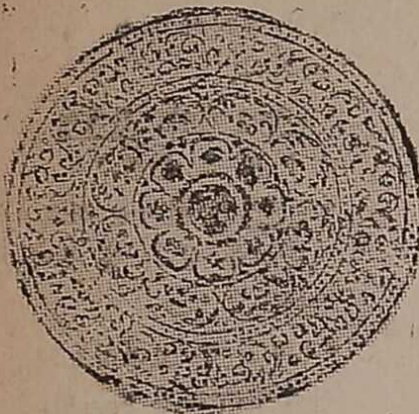
“그럼 어떻게하니, 그애 정머에 돈으로 준다면 발을 리 없구 과자를 살데두 몇 개 안되구...”

하며 규상이는 웃어 버렸다.

—(계속)—

# 새로 발견된 신라의 종

(신라종의 당좌)



여러분! 우리나라 명산(名山)의 하나로서 이름높은 강원도 설악산(雪岳山)을 아시겠지요. 38선이 멀지 않은 이곳 깊은 산 속에서 신라시대의 아름다운 종이 발견되었다 함은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벌써 제작년 가을의 일이라고 합니다. 강릉군 신서면 미천리(江陵郡新西面美川里)라는 곳에 속하는 산 속에서 목기(木器)를 깎는 사람들이 초그만 집을 짓고, 부엌에서 솥을 걸려고 하다가 바로 그 밑에서 발견하였다는데, 그곳은 옛날에 선림사(禪林寺)라고 하는 큰 절이 있던 터라고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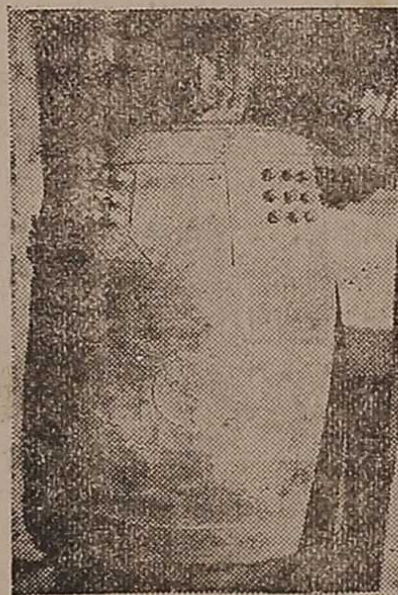
종은 땅 속 깊이 약 두 자되는 곳에 가로 놓여 있었는데, 그 들 때에는 숯(木炭)이 많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옛날에 무슨 급한 사정이 생겨서 종들이 절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와 같이 묻고 간 듯 합니다. 숯을 넣었기 때문인지, 종은 조금도 상하지 않았고 녹도 심하지 않아서 아주 새것 같이 보입니다.

—설악산 옛 절터에서—

## 황 수 영

이 같은 점에서 옛 사람들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종의 크기는 높이가 1미터 22센치이며 직경은 68센치이므로 그 다지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남아 있는 오직 두 개의 신라종과 비교한다면, 경주 봉덕사(奉德寺) 종의 제일 크고,



(새로 발견된 신라종)

오대산(五臺山) 상원사(上院寺) 종의 그 다음이며, 이 종의 가장 작은 종이라고 하겠으나, 그 모양만은 봉덕사 종이나 상원사 종과 거의 같아서 신라 종의 아름다운 모양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라종의 모양이라 함

은 어떠한 것일까요. 지금 새로 발견된 이 종을 들어서 그 특색(特色)을 간단히 말하여 보겠습니다. 길고 둥근 종신(鐘身)의 위와 아래에는 고운 꽃무늬와 작은 부처의 모양을 사경 띠가 둘러 있고, 종의 어깨에는 유(乳)라고 부르는 젖꼭지 같은 것을 아홉 개씩 갖고 있는 네모꼴의 레두리가 네 곳에 둘러 있습니다. 다시 그 밑으로 종의 중앙이 되는 곳에는 큰 부처의 모양이 두 곳에 아름답게 사져 있습니다. 구름에 높이 떠서 하늘을 날으는 두 분의 부처는 구슬목거리 팔각지로 곱게 몸치장을 하였고, 비단옷기는 바람에 휘날리면서 연꽃 위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한 분은 긴 피리를 불고 있고, 다른 한 분은 두 손을 들어 피리 소리에 맞춰서 무릎 위에 놓인 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맑고도 깨끗한 종소리가 울려 나올 때마다 피리 소리 장구 소리도 분명히 들려 오는 듯합니다. 다시 이 두 곳 부처 사이에는 둥근 모양의 조각이 두 곳에 사져 있습니다. 이것은 종을 치는 곳으로서 당좌(撞座)라고 부르는데, 그 안에도 연꽃 같은 무늬를 곱게 사져 놓았습니다.

또 종꼭지에는 용 한 마리가 두

밭을 앞 뒤로 뚫고 옆드려 있으며, 그 옆에는 상하(上下)에 구멍이 뚫린 용(甬)이라고 부르는 둥근 통이 세워 있는데, 이곳에도 고운 무늬를 사져 놓았습니다. 이것이 신라 종의 아너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종의 독특한 모양이라고 할 때는, 그 모양이 이웃나라인 중국이나 일본의 종과는 비교가 아니될만큼 뛰어나게 아름답다워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이라는 칭찬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이 종의 내면(內面)에는 17줄 147자의 글자가 단정하게 사져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한글글자인데, 우리나라에 독특한 이두(吏讀)를 넣어서 글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 글을 읽어서 이 종을 만든 이야기와, 그 연대(年代)와, 관계한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첫째 줄에는 "정원(貞元) 20년 3월 20일 우리 절의 종이 이두어지니라" 하였는데, 정원(당나라의 연호) 20년은 신라 애장왕(哀莊王) 5년, 서기 804년에 해당하므로 지금부터 꼭 1146년 전의 작품임을 똑똑히 알 수 있습니다. 신라종의 연대를 비교하여 본다면 상원사 종(신라 성덕왕 24년, 서기 725년)이 가장 오래고 경주 봉덕사 종(신라 혜공왕 7년, 서기 771년)이 그 다음이고 이 종이 제일 끝이 됩니다. 신라시대의 글자로서 오늘날 남아 있는 것이 매우 드물다고 하겠는데, 이 글자는 역사연구의 좋은 재료가 될 것입니다.

이 종은 그 후 문교부의 명령

으로 작년 11월 말에 오대산에서 가장 크고 이름 높은 월정사(月精寺)에 옮겨 놓았습니다. 나는 작년 여름에 이 종을 조사하려고 강릉까지 갔다가 교통이 매우 불편하고 또 치안이 나빠서 발견된 곳까지는 가지 못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월정사에 옮겨 놓았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종을 보고 싶은 마음을 더욱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월 5일에 또다시 국립박물관에 제신 이 홍직 선생을 모시고 월정사를 찾아 갔습니다. 해가 저서 어두워질 무렵에 절에도 착하였는데, 나는 먼저 종은 어디 있는냐고 물었습니다. 그리하여 법당 옆으로 뛰어 가서 이 종을 처음 보았을 때에는 너무도 즐거워서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몹시 추운 날에 먼 곳을 찾아온 괴로움도 한 번에 풀려 버리는 듯 하였지요.

신라시대의 종은 이것을 넣어서 모두 셋이 되었는데 그 중 둘이 오대산에 있게 되었습니다. (월정사에서 상원사까지 약 30리밖에 아니됩니다) 우리들은 다시 찾은 이 아름다운 신라종을 우리의 새로운 국보(國寶)로서 길이 보존하여서 또다시 땅 속에 묻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만 되겠습니다. 종은 지금 월정사 법당 옆에 임시로 걸어 놓았는데, 앞으



(신라종이 발견된 근방 지도)

로는 절 마당에 따로 종각(鐘閣)을 짓고 그 안에 보관하기로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불교가 잘 전해 내려오는 이곳에 다시금 자리잡고, 아침 저녁으로 그 맑은 소리를 울리게 되었음은 참으로 신동하고도 다행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은 오대산을 찾아서 이 신라의 아름다운 종 소리를 들어 보십시오.

**애독자 여러분에게!**  
 지난 2월치부터 애독자 상라기에는 독자증을 붙여 보내기로 되었으나, 다른 작품(작문, 동요, 척척박사, 깔깔박사등)에는 독자증이 없어도 좋으니 많이들 보내주십시오.  
 (편집부)

# 누가 먼저

한글 연구의 선구자

周時經 先生

조 용 만

지금 여러 분들이 쓰고 있는 “한글”은 근래에 와서, 누가 제일 먼저 다시 연구하기를 시작하였는지 아십니까. 한글은 물론 세종대왕께서 만드신 것이지만, 그 뒤로 이 글을 쓰지 않고, 다시 어려운 한문만을 쓰게 되어, 자연 한글은 부인배들 사이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처음에 만들어졌던 문법이라든지, 규측이 문란하게 되어 제각급 제식대로의 글루를 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나라 글을 언문(諺文)이라고 하여 제 스스로 낮추어 천대하고, 따라서 문법이 아무렇게나 문란하게 만든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 시경(周時經) 선생은 단기 4209년에 황해도 봉산(鳳山)에서 출생하여, 열 일곱 살까지 글방에서 한문을 배웠습니다. 한문을 배우는데, 글방 선생이 한문으로 읽고 반드시 우리 말로 세기는 것을 보고, 왜 우리 나라에는 우리 말이 있는데, 그것을 쓰지 않고 어려운 한문을 쓸까 하고, 그 때부터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우리 나라 글을 연구하여, 우리 나라 사람들

이 우리 나라 글을 쓰도록 해야 한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후 그 이듬해 열여덟 살에 서울로 뛰어올라 배재학당(培材學堂)에 입학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배재학당은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학교로서 여기서 주 선생은 새로운 서양 학문을 배우는 한편, 더욱 열심으로 우리 나라 글을 연구하여 갔습니다. 그러나 생활이 몹시 곤궁해서 이동안에 가게 점원도 되고, 공장의 직공도 되고, 그 밖에 여러 가지 직업을 바꾸면서 한글만은 그냥 연구하였습니다.

어려 저려 배재학당을 졸업한 후, 그 당시 서재필(徐載弼) 박사가 주장해서 발간해 오던 “독립



신문”이 배재학당에서 인쇄되는 것을 기회로, 주 선생은 이 신문의 교정(校正)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문은 한문은 한자도 안쓰고 순전한 우리 글만을 써 오던 신문이므로 선생의 뜻에 맞아서, 선생은 이 신문을 통해서, 우리 나라 글의 문법을 통일하기에 더한층 노력했습니다. 이리하

여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식으로 써오던 글루를 통일하기에 노력하였습니다. 조선문동식회(朝鮮文同式會)를 조직한 것은 이때인데, 이회는 그 이듬과 같이 우리 글을 똑 같은 형식으로 쓰기를 연구하는 단체로 말하자면, 오늘날의 한글학회의 맹추임 출발인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문동식회”를 조직하여, 우리 글의 문법통일을 꾀하는 한편, 상동(尙洞)에 배당에다가 야학을 설치하고, 우리 글의 바른 문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때 많은 등지를 얻어, 한글운동은 차차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 뒤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가 조직되자 이회에 참가하여, 이회에서 발간하는 모든 책의 교정을 맡아 보고, 이 때부터 우리나라 말 사전(辭典)을 만드는 뜻을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중앙학교, 휘문의숙 같은 각 중등 학교에 나가서 우리 글을 가르쳤습니다. 이 때 선생은 생활이 극도로 곤궁하였지만, 열심이 가르치고, 열심이 연구하여, 한글 학자로서의 명성을 크게 떨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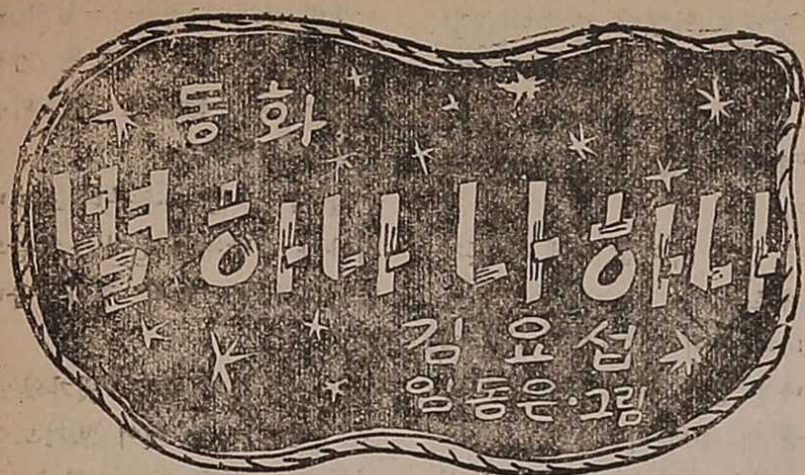
이러하던 중 선생의 나이 서른 아홉되는 단기 4237년 7월에, 아깝게도 별세하였습니다.

선생이 우리 한글을 연구한 공로는 영구히 빛날 것으로, 오늘날 한글학회의 모든 학자들은 거진나 주 선생의 제자들이십니다.

(사진은 주 시경 선생)

★ ★ ★





하늘의 별만큼 땅 위에는 아이들이 삽니다.

땅 위에 아이들만큼 하늘엔 별이 삽니다.

땅 위에 새로 갓난 아기가 태어난 날 밤마다 하늘에도 새로 별이 하나씩 돋았습니다.

밤마다 별들은 아름다운 꿈 잔치를 차립니다.

꿈 잔치를 차리고 나서는 각기 별들은 자기와 함께 땅 위에 태어난 아기한테 꿈을 보내 줍니다.

그래서 하늘에 별이 많은 밤 일쭉처럼 땅 위에 집집마다 아름다운 꿈이 꾸어집니다.

그대신 별이 없는 캄캄한 밤이면 흔히 땅 위의 아이들은 무서운 꿈을 꾸니다.

어느 외로운 별과 함께 이 세상에 같이 왔다 별과 함께 사라진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초저녁부터 황토길 옆 보리밭에 고통스레 몸을 꼬누며 어머니가 앓습니다.

보리 밭 위 하늘엔 많은 별들이 켜진 밤입니다.

그 옆에 아버지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앓는 시중을 합니다.

밤도 깊었습니다.

갓난 아기의 울음 소리가 보리밭 속에서 갑자기 터졌습니다.

그 때 서쪽 하늘에 새로 은빛 별이 짹짹 보리밭 속 아기의 울음 소리와 함께 돋았습니다.

그 은빛 별을,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아기의 첫 울음 소리에 까마득해 가던 정신이 아찔하며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힘을 잃고 꺾 자리에 쓰러졌습니다.

한참만에 아기는 시름없이 잠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아기와 같이 돋은 은빛 별이 너무나 신기하여,

“여보 애가 내 배에서 마악 떨어지는데 저기 저 은빛 별이 같이 돋지 않았겠오.”

아기의 아버지한테 손을 쳐들어 새로 돋은 별을 가리키며 도란 도란 말하였습니다.

그 다음 밤 아버지는 서쪽 하늘 한쪽 구석 외롭게 혼자 돋은 은빛 별을 바라 보며 보리밭 속에 집없이 누운 아기에게 “은”이란 아름다운 이름을 지어 주

었습니다.

“은아!” 아버지도 어머니도 귀엽게 이렇게 아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보리밭에서 난 은이는 자기와 함께 한밤에 난 은빛 별 이야기를 들으며 자꾸 커갔습니다.

보리밭에서 나고 보리 밭에서 자란 은이는 이따금 보리밭에서 떠나 돌다리를 지나서 많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에 갔습니다.

우루루 골목에서 물켜 놀던 아이들이 흐려지며

둥 둥 아기 문둥이

둥 둥 꼬마 문둥이

놀러왔습니다.

아무도 아무도 은의 아름다운 이름 은이라 불러 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은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보리밭에서 사는 문둥이였습니다.

은이도 문둥이였던 것입니다.

골목마다 아이들은 많은데, 은이의 동무는 하나도 없이, 그대신 “문둥이 문둥이 작은 문둥이” 은의 아름다운 이름은 불러주지도 않고, 이렇게 소리치며 골목을 피해 쭈루루 달아났습니다.

골목에 혼자 남은 은이는 골목 쓰레기에서 주워 호주머니에 간직해 두었던 손바닥만한 깨어진 거울 조각을 꺼내 얼굴을 비쳐 봅니다.

은이 자기도 보니까 흉한 얼굴이었습니다.

은이는 못볼 것을 본 듯 얼른 거울을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첫밧아 깨뜨려 버렸 습니다.

머리를 푹 숙이고 외로운 마 음으로 보리밭 길을 돌아왔습 니다.

어쩌면 아까 깨뜨린 거울 조 작은 일부러 은이 얼굴을 밟게 비치우도록, 심술 나쁜 아이들 이 만든 요술부리는 거울 같기 도 하여 믿어지지 않았습니 다.

은이는 맑은 물이 흐르는 냇 가로 찾아가 자기의 얼굴을 비 쳐봅니다.

맑은 물에는 파란 하늘이 파 란 그대로 뜨고, 하얀 구름이 하 얀 그대로 물 위로 흘러가고, 그 속에 은이 얼굴이 비쳤습니 다.

“네 이름이 뭐냐? 은이지! 문둥이는 아니지 문둥이는 거 짓말이지.”

은이는 이렇게 물 속에 비친 얼굴하고 울상이 되어 물어보다 가 은이는 그냥 미운 얼굴이 안 타까워 보리밭에 얼굴 문지르며 울다 스르르 잠들었습니 다.

꿈결에도 은을 아이들은 문둥 이라고 놀려대고, 골목 담 모퉁 에서 돌맹이가 은이를 향해 날 아오기도 합니다.

사나운 개에게 아슬아슬 골목 을 쫓기다 은이는 꿈에서 깨어 났습니 다.

서쪽 하늘 은빛 별은 먼 하늘 에서 반짝 반짝 은을 보며 비치 고 있었습니 다.

꿈에도 벗어나지 못하는 문둥 이.

땅 위에 집집마다 아기들의 포 근한 잠자리 속에는 꿈잔치를 차 린 별이 보내 주는 아름다운 꿈

을 꾸는데, 보리밭에 은이만이 이 밤에도 이슬에 축축히 젖어 혼자 문둥이 꿈에 시달렸습니 다.

“별아. 수많은 별 속에 너 혼자, 수많은 아이들 속에 나 혼자 외로운, 나와 같이 이 세상에 나온 정다운 별아, 내게 아름다운 꿈 을 한 결레 다오!”

은이는 가만히 보리밭에서 이 렇게 은빛 별을 보며 읊조리다 다시 잤습니 다.

아니나 다를까. 서쪽 하늘 혼자 뜬 은빛 별은 아름다운 꿈 을 한 결레 은빛 화살에 꽂아 보 리밭 은이의 머 리맡에 보냈습 니 다.

은이가 환한 달님이 되었습 니 다.

미운던 은이 얼굴은 환한 달 이 되어 낮에 은이를 문둥이라 놀려대던 골목 을 환히 비쳤습 니 다.

은이를 놀리 던 아이들이 달 빛에 환한 골목 에 나와 달이 된 은이를 쳐다보 며,

달아 달아 밝 은 달아 이레백이 노 던 달아

노래해주는 꿈이었습니다.

깨어 보니 은이는 달님이 아 니고 냇가에 비친 얼굴은 어찌 그 얼굴 아이들이 놀리던 미운 얼굴 이었습니다.

달 꿈을 꾸 다음부터 보리밭 파아란 달밤에는 은이는 하늘의 달한테 꾸벅 꾸벅 절하였습 니 다.

달빛이 환히 물든 냇가의 물 로 얼굴을 자주 씻어 보기도 합 니 다.

꿈에 되어본 달처럼 환한 얼 굴이 될까. 싶어 그러나 그것도 조용했습니 다.

◇ ◇  
가을 날 은이는 아버지 어머



# 손님

尹 石重 謠  
尹 克榮 曲

더울 때 한 줄기 소내기도 반가운 반가운  
손님에 - 요 추울 때 푸근한 함박-눈도  
반가운 반가운 손-님-에-요-

니와 함께 황토길을 자꾸만 따라 큰 도시에 들어 왔습니다.

자동차가 지나고 마차가 지나고 수 많은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콩크리트 다리 밑에 세 식구는 집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난데 없는 자동차가 다리 있는테로 호기 있게 나타나더니 다리 밑에 혼자 있는 은이를 다짜고짜로 실고 사정없이 달아났습니다.

저리를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마침 어느 점포 앞에서 목에 핏대를 세워 각설을 하는 엄마 아파 뺨을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은이는 자동차 위에서 영 영 울며,

“엄마야—”

하고 울음섞어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각설을 하다가 말고, 자동차에 실려가는 은이를 보고는 깜짝 놀라 마구 두 발을 탕 탕 구르며 울었습니다.

“은아……은아……”

멀리 멀리 달아나는 자동차를 보며 슬픈 얼굴로 목놓아 부르다 자동차가 안보일 때 그만 땅에 쓰러져 흙이 파지도록 엉엉 울었습니다.

자동차는 어두워 오는 촌길 저녁 어스름 죽을 그냥 달렸습니다.

은이는 덜커덕거리는 자동차 위에 쓰러져 끝 없이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때 먼— 어두워가는 서쪽 하늘에 은이와 같이 이 세상에 나온 은빛 별이 켜졌습니다.

에덴의 집에 들어와 있는 은이는 다리 밑에나 보리밭에 있을 때보다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한테 있을 때보다 깨끗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래도 어린 은이의 눈 앞에는 남들이 문둥이라 흉보는 어머니 아버지 그 얼굴이 언제나 듬니다.

그리고 이 세상 아무도 아무

도 몰려 주지 않던 이름 “은아” 부르던 그 음성이 언제나 가슴에 젖어 있었습니다.

얼음 언 유리창 밖에는 날마다 눈이 나립니다.

밤에 켜지는 은빛 별은 하얗게 얼어버린 유리창에 차게 그 빛 어리어 은의 꿈을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불을 끄고 자리에 들어가 자야 할 때 에덴의 집에서는 조용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은이는 기도 대신에 가만 가만 얼음 언 유리창 너머 은빛 별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넓고 넓은 하늘과 땅에 별 하나 나 하나 정다운 별아! 어머니 아버지와 같이 있는 꿈을 한 결레 다오.”

눈이 자꾸 오기 시작 하더니 크리쓰마쓰가 옵니다.

크리쓰마쓰 오는 절날 밤 눈은 그냥 소복 소복 내리었습니다.

은이는 성탄목에 촛불을 하나 하나 켜 놓는데 이제 고요한 새벽에 저 베들레헴 어느 주막집 딸구움에서 어린 예수가 나고 그 밤 주막 지붕 위에는 커다란 별이 뜬다는 성경 이야기를 생각하며, 은이는 보리밭에서 난 자기 생각도 하다가 어더선지 아버지 어머니가 “은아—”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귀가 번쩍 떠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이곳까지 은이를 찾아 온 것 같기도 하였습니다.

켜던 촛불 그만 놓고 은이는

촛불로 환히 밝아진 망 안을 빠져 나왔습니다.

뜰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어둠 속에서 나직하게 불려옵니다.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움막 속 눈 오는 밤은 추워서 엄마 품에 꼬옥 안겨 자던 때가 그렇습니다.

머릿 속에 사진처럼 찍히는 엄마 아빠의 얼굴을 생각하며 한참 망서리다, 무엇을 결심한 듯 유리창으로 들여다 보이는 성탄목의 고요히 타는 촛불을 서서 보다가, 조심스레 담 밑으로 온 은이의 몸집은 가볍게 날아 눈이 소복히 쌓인 담을 쿵 뛰어 넘었습니다.

그리고 쫓기는 사람처럼 죽자코 달음박질했습니다.

성탄목 촛불에 밝혀진 에덴의 집이 멀리 눈 속에 파묻혀 안보일 때, 숨이 턱에서 헐떡거리어 피로운 것을 그냥 달려 오다 꼭

눈 길에 거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서지 못하였습니다.

아득히 켜져 있는 은빛 별 아래로만 가면 어머니 아버지가 있을 것만 같아.

“별아 엄마—”

그 다음 말을 못하고 은의 가슴이 눈 속에서 얼어 갔습니다.

하늘에 돋았던 은빛 별이 점점 커다랗게 커가더니 찌익 떨어져 은이 있는 데로 옵니다.

가슴 속과 눈 앞 사방이 점점 어두워 오더니 그것은 죽음의 그들이 드리웠기에……떨어져 오는 별빛에 갑자기 환해지며 은의 얼굴도 달처럼 환해지며 두 눈이 고요히 감기었습니다.



밤이 새어 황토길 흔길 아기 문둥이 죽은 하얀 눈 무덤 위에 새카만 별찌가 하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 ★ 새 소식 ★

#### 공기 속에서 “중수”(重水)

지난 전쟁중에 원자폭탄과 관련하여 유명해진 “중수”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 속에서도 취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 물리학 교수 아사 아텔 박사가 이것을 발견하였는데, 이 “중수”는 우리 인간이나 다른 생물들이 먹은 음식은 어떻게 해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이며, 약은 어떻게 해서 병이 낫게 되는 것인가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것이라고 합니다. 1941년에 아텔 박사가 이것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중수”는 바다 속에만 있는 것인 줄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UP)

#### 이 돈으로 비행기 사세요

—순결한 어린이의 애국심—

지금 정부에서는 우리 나라 국토를 지킬 비행기를 사들일 기금을 모으고 있는 중인데, 지난 12월 6일 매섭게 추운 아침, 서울 종암 국민 학교 3학년 6반 채 초혜양(10살)은 동아일보사를 찾아와서 1000원을 내놓으며, 비행기 사는데 보태어 써 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아버지 어머니께서 쓰라고 주시는 돈에서 몇달을 두고 조금씩 모은 것이라 하니 얼마나 훌륭한 마음씨입니까.

#### ★ 북성당 소년 소녀 문고 ★

##### 모오구리의 모험

작은별 번안 · 김 의환 그림

전편 · 후편 · 합본 값 350원

##### 신라의 별

이 성포 지음 · 정 현웅 그림

김 유신장군의 이야기!

값 250원

##### 소년 탐정 에밀

심 은정 번안 · 김 의환 그림

대모험 소설 값 350원

##### 위인들의 한평생

김 소천 엮음 · 김 의환 그림

처음 나온 세계 위인전!

값 280원

총 판 매 책 문 장 각



## 나 팔 수 선

수선화는 봄바람 불어 오는 삼월을 아름답게 꾸며 줍니다. 수선화는 봄 소식을 알려 주는 꽃입니다. 노랑빛 꽃잎이라든지, 황금빛 방울이라든지, 꽃관이든지를 보며는 경솔하여집니다.

꽃봉오리는 처음에 긴 칼 모양으로 뻗친 잎사이에 꽃꽂히서 있습니다. 날이 지날수록 비늘잎을 밀어 젖히고 머리를 밀어 내서 점점 속이게 됩니다.

꽃이 피면, 햇볕을 마음껏 쬐이고 싶어서, 그 쪽으로 반듯하게 머리를 두들니다. 꽃줄기는 속이 비어 있어 몹시 연하므로 꼭 끊어지는 일은 없을찌라도 바람이 열핀 한 하여도 흔들립니다. 씨방을 싸고 있는 밤색

비늘을 벗겨 내 보시지요. 줄기가 가늘어서 꽃을 이리저리 돌리기란 어렵잖은 일입니다.

꽃잎 여섯이 모여서 길쭉한 통을 만들고 있습니다. 통꽃 속에는 수술과, 세 갈래로 고드머리가 갈라진 암술꼭지가 있고, 그 밑둥이에는 달디단 꿀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에나비나 벌과 같이 허리가 가늘은 벌레가 아니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씨가 들어 있는 자루 — 곧 씨알의 주머니에는 작은 방이 셋으로 나뉘어 있고 씨는 방마다 두 줄로 들어 있습니다.

씨를 뿌려서 꽃이 되기까지는 3년이나 5년이 걸립니다. 덩이뿌리는 불어나므로 얼마 있

게 얹어서 많아집니다. 덩이 뿌리는 큰 그릇으로부터 작은 것이 생기는 때, 그 작은 그릇이 제법 커지면, 어미 그릇에서 떨어져서 제 살림을 하게 됩니다.

“까마귀마늘” “상사꽃” “나르씨씨쓰” 는 모두 수선화의 한 저메입니다. 산들바람을 타는 수선화 벌판은 그야말로 아름다운 한쪽의 그림입

니다.

영국의 시인 워드워즈는 매우 감격하여,

.....

눈이 부서라 꽃의 바다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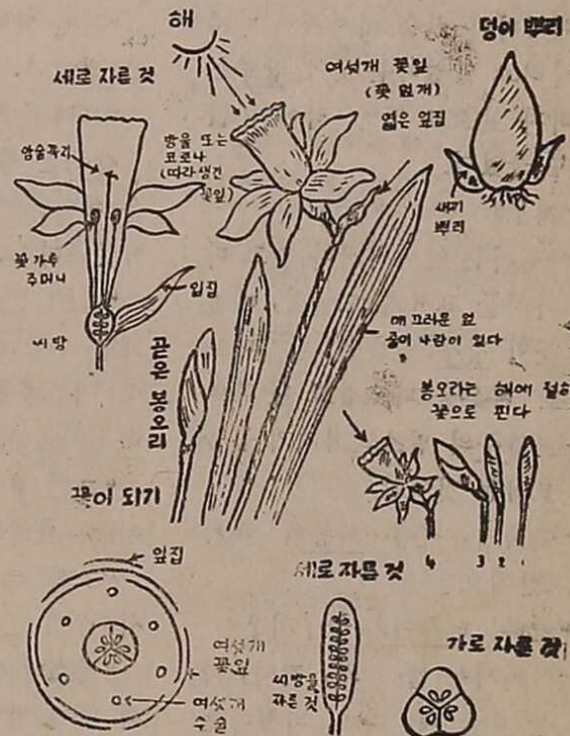
나풀거리며 춤을 추

노나

.....

하고, 그 유명한 시를 쓴 것은 우리가 아닐게지요.

## 나 팔 수 선



다음달에는

꽃을 나누어 보면

# 이름 없는 별들 (7)



정 인 택  
그림·정 현 응

## 제6장 어른들의 세계

### (1)

“아버지!”

어머니가 상을 내가지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갑주는 아버지 앞으로 바짝 다가와 앉으며 불렀다.

“왜?”

아버지는 일어서시다. 말고 다시 자리를 고쳐 앉으면서, 대견한 듯이 갑주 얼굴을 바라다보신다. 마음을 바로잡고 난 후부터는 갑주의 말소리까지가 능능해 보이는 것이다.

“아버지, 저어... 희봉이 얘기 들으셨어요?”

“몰라. 희봉이가 누구지?”

“아버지두 참... 왜, 저어, 학교 불났을 때, 다리 다쳤다는 아이 있지 않아요?”

“으응, 그래, 그래. 그건 아니다. 그래서...”

“희봉이 다리가 덧니서 입원했는데 밀예요, 여저께 병원에 갔더니, 오늘 수술허구 다리

를 잘르대요.”

갑주는 제 다리나 자르게 된 듯이 상을 찡그리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저런 딱헌 일이 있니. 그거 안 됐구나.”

“그래서 말예요...”

갑주는 잠간 말을 끊고, 어려운 청이나 할 때 모양으로 머뭇머뭇하다가,

“오늘 놀러들 가기루 한 거 고만 두구, 그 돈을 파서 희봉이 갖다 주기루 했어요. 중호허구, 래진이허구, 또 옥순이허구...”

“그거 잘 생각했다. 그래 모두 파 보니까 얼마나 되더?”

“7백 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적으니까, 아버지더러 좀 보래 달란 말이지?”

아버지는 웃으시며 앞질러 말 씩하셨다.

“네... 희봉이네는 살기두 어려운데다, 오래 입원해 있기 때문에... 아주 돈이 없어서 찢찢 맨대요.”

“그래, 얼마나 있으면 되겠니?”

“얼마든지 좋아요. 아버지 지갑에 있는 돈 다 주세요 네?”

“예끼녀석, 허허허허.”

아버지는 껄껄 웃으시고, 잠간 생각하시더니 양복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갑주 앞에 내미셨다.

“천 원이다. 이것만 있으면 되겠지?”

“네!”

갑주는 입이 딱 벌어졌다. 이렇게 많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이다. 다급한 마음에 얼른 그 돈을 받아 들고 옥순비 집으로 뛰어가려는 판인데, 아버지는 또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시며,

“그 돈은 네 몫으루 갖다 두구, 이것은 내가 따로 주는게니, 희봉이 과일이나 사다 주어라.”

그러면서 또 돈 천 원을 내주시는 것이다.

“네!”

갑주는 그 한 마디 말 밖에 대답할 줄을 몰랐다.

(2)

옥순이네 집에서도, 종호네 집에서 이와 똑 같은 장면이 벌어지고 있었다.

옥순이는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 회봉이 얘기 들으셨죠?”

이렇게 말했고, 종호는 종호대로 아버지한테,

“아버지, 회봉이 얘기 들으셨어요?”

이렇게 말했다.  
“왜, 회봉이가 어쩔니?”

옥순이 어머니는 이렇게 물으셨고,

“회봉이? 다리 다쳤다는 아이 말이지?”

종호 아버지는 이렇게 물으셨다.

“네, 회봉이 다친 다리가 덧나서...오늘 수술하구 잘르게 됐대요.”

“저런 저길 어떡하니, 기잡애가?”

이렇게 동정하시는 눈치만 보던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래서 결국 옥순이는 3백원을, 종호는 5백원을 집에서 타낸 것이다. 옥순이나 종호나, 갑주네 집에 비하면 문체도 안 될만큼 어려웠다. 그들에게 있어서 3백 원, 5백 원도 여간 큰 돈이 아닌 것이다.

이렇게 정성들이 지극한 가운데, 창수네 집만은 좀 사정이 달랐다.

그 전날, 병원에서 돌아온 창

수는 몹시 얼굴이 창백했다. 얼굴만이 그런게 아니라, 온몸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담겨 있는 듯 싶었다.

창수 부모님은 깜짝 놀라시며,

“너 어디 아프냐? 얼굴빛이 종잇장 같구나.”

그러나 창수는 대답도 없이 방에가 픽 쓰러진채 잠잠하다.

“어딜 갔다 이렇게 늦게 오니? 저녁 먹을 생각두 안려구.”

하시면서 누운 창수 이마를 짚으신 어머니는 필쩍 뛰시며,

“아이구, 열이 대단허구나. 애두 왜그러냐, 어디가 아프면 아프다구 말을 못허구.....”

집안이 발각 뒤집히다 싶이 야단이 났으나, 창수는 굳이 입을 열지 않고,

“아프지 않대니깐.....애애니들.....안 아파요. 글썸.....”

릉름스럽게 내뿜을 뿐, 벽을 향한채 돌아누울 생각도 안했다.

그렇게 누워 있으려니까, 병원에서 졸도하던 순간의 일이 문득 창수 눈앞에 떠올랐다.

.....회봉이 다리를 자른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창수는 머리속이 텅 비이는 것 같고, 앞이 캄캄해지는 듯 싶었다. 거기까지만 생각나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영 기억에 없다.

다시 정신이 들었을 때엔, 창수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동무들의 걱정스런 얼굴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

침대에서 일어나니까, 다리가 휘청거렸다. 창수는 동무들의

☆ 이름 없는 별들 ☆

지금까지 이야기 줄거리

서울 문밖 어느 국민학교 마당에서 영화를 볼리게 되었는데, 시작하지 5분도 되어 별안간 요란한 소리와 함께 불길기 하늘을 찌를 듯한 큰 불이 일어났다.

이름에 구경 갔던 회봉이는, 여러 어른 틈에 밀리어, 쓰러져 재이고, 발허가까 그 만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누가 물을 놓았는지 모르나 태진이 이야기로 일본놈이 괴롭고 간 폭탄이 터져서 불이 난 것이라고 하자, 그 때 구경 갔던 아이들이 수상하기하는 말을 하였을 때, 창수의 태도가 좀 이상했다.

불이 타버린 학교는 몹시 쓸쓸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1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전교생이 학교에 모여 선생님을 도와 일을 시작했다. 더러울 다친 회봉이는 아직도 상처가 가시지도 않았는데 일을 하러 갔다.

먼지투성이, 흙투성이 속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 나쁜 군이 상처로 물어 갔던 모양이다. 그날 밤부터 회봉이는 다시 열이 오르고 더러가 쑤셔, 드디어 문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그 소식을 듣자 회봉이를 문병한답시고 태진이 옥순이 갑주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벌써, 종호 윤봉이 창수가 와 있었다.

이윽고 회봉이 어머니와 의사, 간호부가 들어왔다. 그들의 표정으로 보아 회봉이 녀세가 매우 급한 모양이다.

여러 어린이들은 복도로 쫓겨나왔다. 갑주가 어떻게 된 일이라고 윤봉이에게 물으니, 윤봉이는 기느기란 목소리로 더러울 할 라이하게 되었고 대답한다.

그 때였다. 윤봉이 곁에 있던 창수가 악소리를 지르며, 방질 문 앞으로 가더니, 문 손잡이를 잡고 까무러쳐 그대로 픽 쓰러졌다.

부축을 받아, 간신히 집에까지 돌아온 것이다.

.....참 다른 애들은, 내일 열 타썩이나 가져올까?

그러자, 이번엔 그것이 걱정이 되었다. 창수는 많이 가지고 간 자신이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도 그랬다. 창수는 등 무들끼리 추념을 할 적마다 부끄러웠다. 언제든지 차기가 제일 팔지였다. 다른 아이들에게 비해 가난한 편은 아니었으나, 창수 아버지는 돈 이야기만 하

며 상을 찡그리신다. 그래서 한 번도 녀석하게, 남에게 지지 않게, 돈을 가져가 본 일이 없는 것이다.

이 번에도 역시 자기가 제일 적을 것이다……그렇게 생각하니, 부끄러울 뿐만이 아니었다. 눈물이 나도록 마음이 구슬퍼지는 것이다.

창수 생각 갈아서는 이번만은 자기가 제일 많이 내고 싶었다. 그러나……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것이었다.

이튿날 아침, 창수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졸랐다.

“아버지, 저어…… 회봉이 다리를 잘르게 됐대요.”

아버지는 신문 읽기에 바쁘신지, 대답이 없으시다.

“아버지, 저어……”

또 한 번 되풀이 했으나 아버지는 여전히 모른체 하실 뿐이다.

창수는 고만 돈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말았다.

### (3)

모이기로 약속한 곳은 학교 뒷산이었다.

제일 먼저 온 아이는 갑주다. 갑주는 피약벌이 쟁쟁 내려쬐이는 바위 위에 걸터앉아, 학교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다나만큼 돈 가져온 아이는 없을 거야, 생각하니 적이 마음이 흐뭇하다.

이윽고, 고무신을 짹짹 끌며 옥순이가 나타났다. 생글생글 웃는 입술 사이로 하얀 이가 귀염강스럽게 빛났다.

“너, 어디 갔다 오니? 나, 너 이 집에 갔다 왔다!”

갑주는 혼자 먼저 와서 기다린 게 분한 모양이다.

“언제?”

옥순이는 나란히 곁에 와 앉았다.

“아까 아까! 집에서 나오다가……”

“응. 그럼 나 심부름 갔을 때야. 오빠 벌써 왔우?”

“그럼, 얼마나 기대렸대구.”

“누가 먼점 오랬나, 아직도 약속 시간은 멀었는데……”

갑주는 뿔뿔해서 얼굴을 돌린다. 그쪽에서 종호가 래지이와 짝 지어 걸어오고 있었다.

“꼬마야아.”

갑주는 금방 웃는 낯으로, 길 쪽을 향하여 고함을 친다. 반갑다는 것이다.

종호와 래지이는 힐끔 이쪽을 쳐다보더니, 쓴살 같이 뛰어 오기 시작하였다. 순식간에 두 소년은 갑주 앞에 와 섰다.

“창수는?”

숨이 차서 헐떡거리면서, 우선 종호는 이것부터 물었다.

“아직 안 왔어!”

“입때?”

자기 늦은 생각은 안하고 종호는 제법 성을 벌컥 내며,

“꼬마야.”

래지이를 불렀다.]

“응?”

“너 창수네 집 알지?”

“알어.”



### ○이 발

아버지 “애, 막둥아 머리 깎자.”

막둥이 “오늘은 추워서 싫어요.”

아버지 “그래도 깎아야 해.”

막둥이 “아버지 그럼, 추우니까 모자쓰고 깎을까.”

아버지 “……” (서울 북성교 한 명수)

### ○기 막 혀요

화가 “아직 이 그림은 말르지 않았으니, 주의해요.”

아내 “행주치마를 입었으니까 편찮아요.”

화가 “…?” (서울 봉래동 김 역풍)

### ○이 없는 동물

선생님 “동물 중에 이가 없는 동물이 있는데 한가지만

말해봐?”

피동이 “그럼 그까짓 걸 몰라요. 우리 할아버지두요.”

선생님 “……” (서울 돈암교 최 동주)

### ○잠 오는 약

재로 들어온 간호부 곤히 잠든 병자를 깨우며 하는 말이, 간호부 “여보세요, 어서 일어나세요. 잠자는 약 잡수실 시간 됐어요.”

환자 “아이 졸려.” (전주 중앙교 윤 석철)



“갔다 와. 빨리 오라구. 제일 가까운 녀석이 제일 늦어?”

“오오케이.”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래진이는 비탈길을 내리달린다.

그 뒷모양을 톺히 바라보며 세 아이는 의미 없이 얼굴을 맞대고 웃었다.

웃고 나서 문득 고개를 학교 마당 쪽으로 돌린 갑주는 불안한 종호 옆구리를 쿡 찌르며,

“애, 저거, 너이 아버지 아니냐?”

무슨 신기한 발견이나 한 듯이 소리쳤다. :

“어디?”

“저기...그런실 살!”

“참!”

종호 아버지는 교장실 쪽으로 들어 신다. 뭘하러 오셨을까? 교장선생님 만나러 오신게지... 얼른 이렇게 생각이 들었으나, 그러나 교장선생님을 만나러 오신 것은 종호 아버지 뿐이 아니었다.

뒤 이어 잘 아는 동네 어른들이 열달아 학교로 밀려들어 오시는 것이다.

“애, 오늘 학교에서 무슨 죄 있나?”

“몰라.”

“너이 아버지, 후원회 일 보시지?”

“응.”

“그럼, 오늘 후원회가 열리는 거야.”

그 때, 래진이가 또 험레벌떡 뛰어왔다.

“창수는 앓른대! 그래서 못 온대.”



래진이 보고를 듣자, 갑주는 앉았던 바위에서 쩡쩡 뛰어내리며,

“그럼, 우리끼리만 가까?”

“창수 녀석은 아주 전 골센님야.”

종호도 두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

“내일 모레로 개학 날지는 막 두렸는데...학교를 재건할 계획은 막연합니다. 첫째 돈 문제... 둘째도, 돈 문제...”

종호를 앞세우고 학교 마당을 가로질러, 큰 길로 나서려던 네 아이는 문득 교장실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교장 선생님의 굵다란 목소리가 호령하 듯 울려

왔기 때문이다.

애, 저것좀 들어 봐!... 하는 듯이 종호는 턱으로 교장실 쪽을 가리키며 걸음을 멈췄다. 모두들 한 덩어리가 되어, 일제히 그리로 고개를 돌렸다.

“...아시다 싶이 학교는 이번 화재로 말미암아... 우리 동네는 원래가 가난한 동네인데다가, 요새 같이 물가가 오르고...”

여기까지 듣고 있던 갑주가 아까 모양으로 또 종호 옆구리를 쿡 찌르며,

“가 보까?”

낮으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  
응.....말 없이 고개만 끄덕이고, 종호는 발을 돌이켰다. 다른 아이들도 그 뒤를 따랐다.

교장실 창 밑에 가서 네 아이

는 쪼그리고 앉았다. 마침 그늘진 데가 돼서 더웁지 않은게 좋았다.

열어젖힌 유리창 너머로 교장 선생님 말씀이 똑똑히 들려 왔다. 전에 없이 흥분하진 듯한 목소리였다.

“...그렇습니다. 학교 재건 문제가, 지금 우리들에게는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도 이미 잘 양해하셨고, 또 그렇게 열성을 보여 주시니 학교 당국 자로서 무엇이든 감사의 말씀을 올려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물은 여러분에게만 의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이들은 저이들 대로 힘 있는 데까지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체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데다, 개학 날자는 목집에 막두렸고...”

교장 선생님의 말씀은 점점 더 길통해 갔다. 중호가 갑주를 돌아보며 가만히 속삭인다.

“학교 짓는 애기지?”

“그래.”

이 때 래지가 휘이 하면서, “떠들지 마어.”

중호 아버지 목소리가 들려 왔던 것이다.

“자식들을 가르치느나, 못가르치느나...참으로 우리들 학부형에게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말 할 것 없이,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학교를 재건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합니다. 학교는 무슨 일이 있든지 다시 세워야 합니다. 다만, 그렇다면, 급한 대로 우선 수축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주 새 교사를 이 기회에 신축하느냐...이 두가지 중의 하나만 결정하면 될 줄입니다.”

중호 아버지 말씀이 끝나자, 교장 선생님이 또 자칫한 일어서시는 모양이었다.

“소심한 저로서는 감히 신축

문제는 생각도 못해봤습니다. 또 여러가지 부담이 많으신 여러분을 더 괴롭히고 싶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새 학교를 새로 지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여기서도 또 비용이 문제입니다. 그것만 해결한다면야...”

“새로 짓기로 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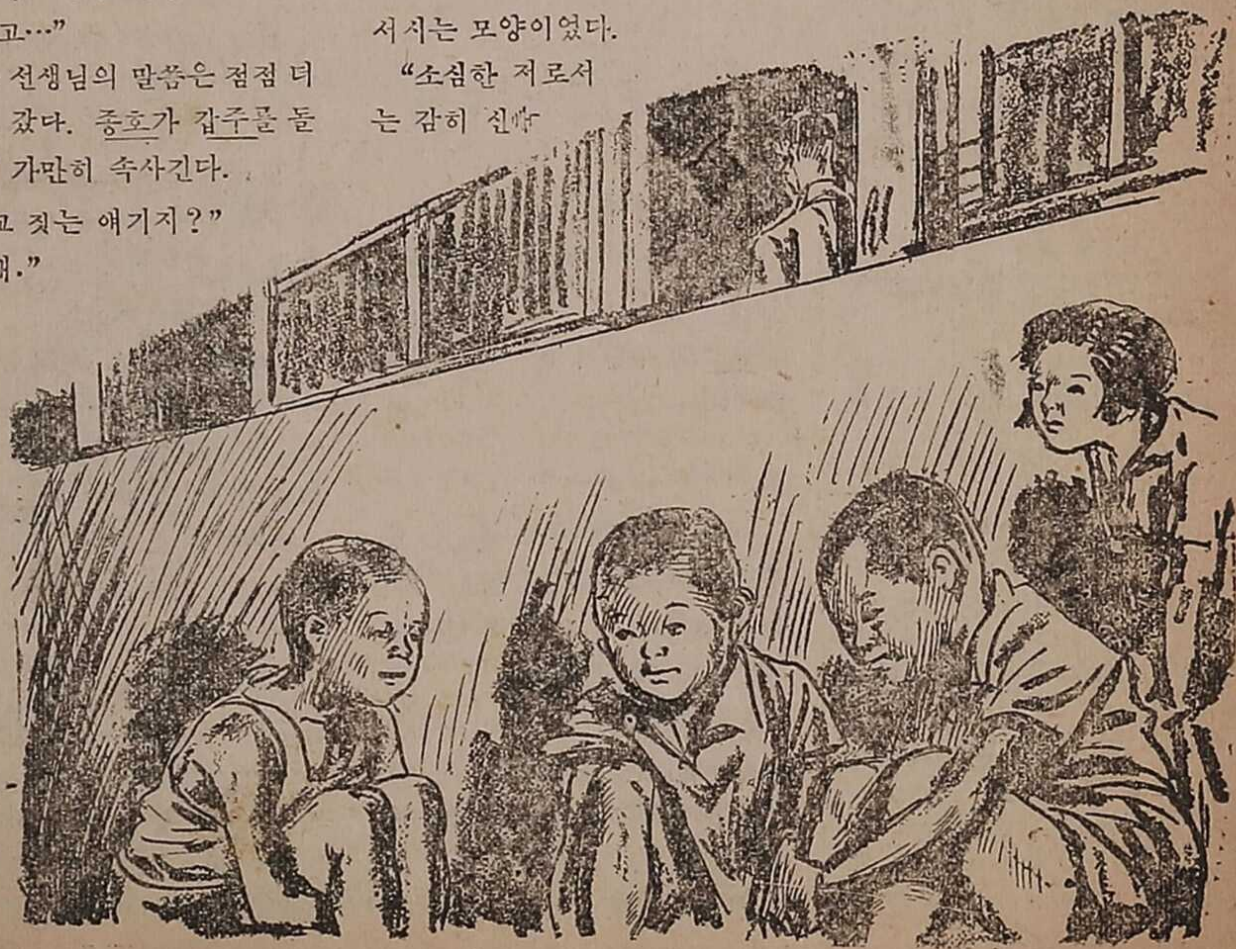
낮 서른 목소리가 이렇게 외쳐 듯 말했다. 그러자 여기 저기서,

“신축에 찬성합니다.”

“새로 짓는데 찬성입니다.”

이런 외침이 들려 왔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학교는 신축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음...”



종호가 신이 나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를 높여,

“애, 학교 재로 짓는대다!” 소리를 지르니까, 래진이 발탁 뛰어들어 일어나며 두 손을 높이 들고,

“만세! 만세!”

엉덩이를 추는 판인데, 별안간 머리 위에서,

“웬 놈들이야?”

교장 선생님의 호통이 터졌다.

(5)

점심때가 훨씬 지났으나, 회의는 아직도 계속되었다.

토의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아니었다. 재로 짓는다면, 어떠한 형식으로 짓느냐. 위치는 어디로 정하며 비용은 얼마나 드느냐. 비용을 거출할 방법은 무엇이고, 당국의 보조는 얼마나 되느냐……그러나, 결국 끝까지 해결짓기 어려운 문제는 후원회에서 얼마나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였다.

그 문제로 지금 한 바탕 논쟁이 벌어진 것이다.

“저로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부담을 적게 해 드리려고 노력하겠읍니다만 만부득이한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의 말씀을 가로채어, 종호 아버지가 또 입을 여셨다.

“문제를 학교 신축에 두지, 저희들 부담은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꼭 이만큼 필요하니 내놓아라, 그렇게 학교 당국에서 결정지어 주시면 우리들은 그

# 애독자 아협 상타기

## 새 문제

다음에 적은 이름들을 이달치 “소학생”에 있는 동화와 소설 속에 나오는 소년들 이름입니다. 어느 소년이 어느 작품에 나오는지 알아맞춰 보십시오.

- ①창수 ②완식이 ③은이
- ④정이 ⑤서동 ⑥규상이
- ⑦희봉이

## ☆상타기 규정☆

1등 10명……학용품 한벌씩  
2등 30명……좋은책 한권씩  
마감 4월 30일  
발표 “소학생” 6월치  
보내실 곳 서울 종로 2가 영복빌딩 아협 “소학생” 편집부  
주의할 것 보내시는 분의 학년 이름을 똑똑히 속에 쓰고, 봉투 겉에는 “현상”이라고 쓰십시오. 그리고 답안에 반드시 “독자층”을 올려서 붙여 보내십시오.

## —1월치 상타기 발표— 바른 대답과 뽑힌 분

### 답 (1) 공자 (2) 시세로

#### 1등 20명

- 김원배 (서울 돈암교 5년)
- 이희자 (서울 혜화교 5년)
- 서인택 (서울 창경교 4년)
- 배효진 (마산 안월교 6년)
- 배옥기 (광주 대성교 5년)
- 오수현 (서울 덕수교 6년)
- 이문자 (안동 중앙교 2년)
- 김명희 (인천 박문교 5년)
- 권학철 (서울 강남교 4년)
- 송형찬 (개성 만월교 5년)
- 김동수 (서울 수송교 6년)
- 김수태 (군산 구암교 6년)
- 서광운 (서울 금화교 4년)
- 황경수 (김포 양천교 6년)
- 임남재 (서울 방산교 5년)
- 전애수 (전안 재산교 4년)
- 안병용 (서울 효창교 4년)
- 방주덕 (서울 영희교 5년)

#### 2등 39명

- 함호중 (서울 공옥교 5년)
- 유 안 (서울 사범교 3년)
- 박순우 (서울 북성교 6년)
- 송계숙 (서울 덕수교 5년)
- 김장영 (서울 교동교 5년)
- 김광수 (서울 중앙교 6년)
- 최상목 (경북 대구교 5년)
- 박정수 (마산 성호교 4년)
- 이인력 (안성 강호원 일구)
- 이정훈 (서울 사범교 6년)
- 김개선 (마산 회원교 5년)
- 원동식 (김포 신영교 6년)
- 김국현 (서울 효제교 4년)
- 임원호 (서울 낙원동 34)
- 최만규 (서울 무학교 5년)
- 정형택 (서울 종로교 5년)
- 김봉애 (서울 혜화교 5년)
- 홍기남 (서울 재동교 4년)

- 장완석 (서울 수송교 5년)
- 정달경 (서울 매동교 4년)
- 이상운 (서울 남산교 6년)
- 국동진 (서울 체부동 191)
- 황순자 (서울 중앙교 4년)
- 박영식 (경북 풍산교 5년)
- 이상복 (서울 창천교 6년)
- 오정소 (서울 북성교 3년)
- 윤석철 (전주 중앙교 6년)
- 고경자 (서울 아담교 4년)
- 오숙환 (수원 신흥교 6년)
- 배원경 (서울 삼천교 5년)
- 김학배 (서울 창신교 6년)
- 김영식 (서울 광희교 5년)
- 홍순학 (서울 돈암교 4년)
- 한명섭 (서울 청동교 5년)
- 한창수 (전주 중앙교 6년)
- 백성기 (서울 교동교 5년)
- 송철영 (서울 봉래교 4년)
- 유우형 (서울 재동교 5년)
- 김재권 (서울 종로교 5년)
- 이해근 (서울 청량교 5년)
- 안창영 (서울 화평교 6년)



대로 실행할 뿐입니다. 무슨 짓을 해서든지 실행할 뿐입니다. 여기 불찬성하시는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종호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었다.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나도록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교육열이...이렇게...”

교장 선생님의 눈에서 정말 눈물이 빛났다. 교장 선생님은 말을 맺지 못하고, 자리에 앉으신채 고개를 떨어뜨렸다.

종호 아버지 옆에 앉았던 늙추구레한 분이 일어서며 말했다.

“저는 아무 것도 모릅니다. 다만 학교 짓는데 돈이 든다, 그러니 그 돈을 너희들이 만들이라, 그런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면 뭐 길게 말할 것까지 없습니다. 내 놓으시라니 내

놓을 뿐이지요. 자식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우리들이 사람 구실을 하며, 새 나라 백성이라 하겠습니다. 저는 재산이라고는 초가집 한 채하고, 돼지 다섯 마리 밖에 없습니다. 돼지 다섯 마리 다 내놓지요. 그래도 모자란다면 집도 잡혀서 내놓구요.”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그 중노인은 이렇게 딱 잘라 말하고 다시 털썩 의자에 걸터앉았다. 잠깐 방안이 조용했다.

저 쪽 구석에서, 이번엔 젊은이가 일어섰다.

“5구 구장 말씀이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밥을 한 끼 굶드라도 자식은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밭 500 평 밖에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거 다 내놓겠습니다.”

또 한 어른이 손을 들고 일어서서 말했다.

“저는 소를 팔아 내놓겠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 호령에 조겨간 출만 알았더니, 네 아이는 어느 틈에 다시 되돌아왔는지, 아까 그 자리에 응기종기 모여 앉아,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여기까지 회의가 진행되었을 때,

“나는 내 저금 다 내놓아야. 3천 원은 돼!”

갑주가 두 주먹을 불끈 쥐어 쳐들며 소리쳤다.

“나두.....”

해진이가 받아서 두 손을 쳐들다가 주춤하고 고개를 움추렸다. 살며시 결눈질을 하여 머리위를 쳐다보고, 그리고 길게 혀를 뱉었다.

(다음달에 계속)

## 글 벗 집 새 책

### 소첩 모범 작품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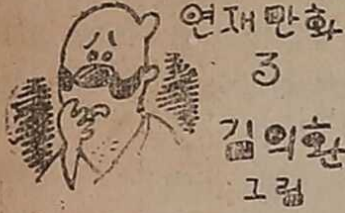
—잘 된 동요와 작문들—

四六版美本 책값 250원 發賣中

지나간 30년 동안 우리 나라에서 발행된 수많은 아동 잡지에 입선 발표된 수천편 아동 작품 가운데서 걸작으로만 추리고 추려 동요 60편, 작문 40편을 모은 주옥편! 아동 자신의 손으로 된 아동 문학의 금자탑! 이 한 권으로 작문 실력을 기른 뒤에 모든 시험을 치루자!

글벗집 책 도맡아 파는대 文章閣 (서울 종로)

# 도술법사



## 새공부 (6)의 해답 1 월 치

- (1) 바위물(岩漿) (2) 뜨겁다 (3) 화산
- (4) 불에된바위(火成岩) (5) 돌비늘(雲母), 질  
돌(長石), 차돌(石英) (6) 쇧돌 (7) 물에된바  
위 (8) 염산(鹽酸) (9) 변해된바위 (10) 변해  
된바위 (11) 미국, 도이취란드, 중국 (12) 소금
- (13) 쇧돌 (14) 탄산가스 (15) 돌고드름, 돌순

- (16) 화석 (17) 순응 (18) 젓먹이짐승 (19) 좁
- (20) 화산 (21) 불구멍 (22) 툴 (것이다) (23)
- 뿔으로 (24) 음파, 소리결 (25) 떴다, 떨게
- (26) 사탕 (27) 기체, 액체, 고체 (28) 소리
- (29) 고체 (30) 340 (31) 다르게 (32) 조선
- (33) 단군왕검 (34) 단군왕검 (35) 개천절(開天節)
- (36) 위만(衛滿) (37) 삼한 (38) 배천교
- (39) 동명성왕 (40) 온조왕 (41) 박혁거세.



문 제 (7) (시간 25분)

(지도) 문교부 교수요목 제정위원 윤 래 영  
 문교부 교과서 편찬 위원

◎문제의 목표

이 문제는 글짓기와 글을 읽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 몇 마디의 말을 앞 뒤로 하여 뜻이 통하는 글로 하는 방법입니다. 완전하지 않은 글을 완전한 글로 만드는 것에, 새로운

힘을 기르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푸는 때는 먼저, 처음 구절이 될 말과, 끝에 갈 구절을 찾아 낸 다음에 중간에 들어갈 말을 적당히 골라 넣을 것입니다.

◎설 명

다음의 구절을 어떠한 차례로 이으면 뜻이 통하는 글이 되겠나, 그 차례를 ( )표 안에 쓰시오.

- 보기 { (5) 큰 무역 항이다.  
 (2) 영국의 (4) 동양  
 제일의 (1) 홍콩은  
 (3) 방으로

- 【1】 ( ) 어찌 말 한 마디 없이  
 ( ) 이제까지 서서 보고만 왔단 말인가!  
 ( ) 당 나라 대장 소 정방이  
 ( ) 화려한 서울 부여를 쳐 부수고  
 ( ) 이 탑에 자기 공을 기록하였으니,  
 ( ) 돌인들 원통한 느낌이 없었으리오만
- 【2】 ( ) 어떻게 제가 죽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대답하였다.  
 ( ) “선생 님께서 살아 계실때  
 ( ) 안 환은  
 ( ) 이 말씀을 듣고,  
 【3】 ( ) 노 나라에 나시었다.  
 ( ) 공자 님은 중국(中國) 춘추 시대에,  
 ( ) 덕행이 뛰어나서, 그 이름이 높으셨다.  
 ( ) 어려서부터 예법을 좋아하시고,  
 【4】 ( ) 어른이 곧 단군 왕검이시디.  
 ( ) 나라의 대표가 되시던  
 ( ) 민족의 중심이시오,  
 ( ) 고조선을 처음 세웠을 때  
 【5】 ( ) 개천절(開天節)이라 하여,  
 ( ) 10월 3일을  
 ( ) 한결 같이 기념하여 온다.

- ( ) 예와 이제를 통하여  
 【6】 ( ) 동명성왕(東明聖王) 주몽은  
 ( ) 고구려의 처음 임금인  
 ( ) 동부여의 궁중에서 잘았다. ]  
 【7】 ( ) 동명성왕의 세째 아들이었다. ]  
 ( ) 본디 고구려  
 ( ) 백제의 처음 임금인 은조왕은  
 【8】 ( ) 전한은 형제가 어린 나이로 즉위하기  
 어른과 같고  
 ( ) 지혜와 덕이 매우 거룩 하다는 말을  
 듣고  
 ( ) 마을 사람들이 공손한 끝에,  
 ( ) 그를 받들어 임금을 삼았다.  
 【9】 ( ) 이것을 다 합쳐서 태양계(太陽系)라  
 고 한다.  
 ( ) 들의 여러 별이 있다.  
 ( ) 해의 둘레에는 떠돌이별, 달별, 별뿔  
 별, 살별,  
 【10】 ( )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다.  
 ( ) 그 속은 거주의 4000갑절이나 되는,  
 ( ) 해의 거주 온도는 한 6000 도,  
 【11】 ( ) 달이 지구 그늘에 들어가,  
 ( ) 이것을 월식(月蝕)이라고 한다.

- ( ) 또는 일부분이 안 보일 때가 있다.  
 ( ) 달의 전부
- 【12】( ) 밀물과 썰물의 차가 9 cm 가량이나  
 되나  
 ( ) 월산 바다에서는 50 cm 밖에 안된  
 다.  
 ( ) 사리 배의  
 ( ) 인천 바다에서는
- 【13】( ) 해, 전등불, 호롱불, 촛불, 숯불, 이  
 령계  
 ( ) 몸소 빛을 내는 물건을  
 ( ) 발광체(發光體)라고 한다.】
- 【14】( ) 암체(暗體)라고 한다.  
 ( ) 달, 바윗돌, 책, 연필, 책상 같은  
 ( ) 몸소 빛을  
 ( ) 내지 않는 것을
- 【15】( ) 빛을 낸다.  
 ( ) 섭씨 500 도 이상으로 달우면  
 ( ) 무슨 물건이든지
- 【16】( ) 귀는 이 소리결을 받아들여서 귀 속  
 으로 보내는데,  
 ( ) 소리결이 귀에 이르면  
 ( ) 많은 소리결이 귀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  
 ( ) 이 때에 귀바퀴는 깎따기와 같은 일  
 을 하여,
- 【17】( ) 뿔의 폭이 넓고 좁음에 따라서  
 ( ) 소리의 높고 낮음이 생기고  
 ( ) 뿔이 빠르고 느림에 따라서  
 ( ) 소리의 크고 작음이 생긴다.】
- 【18】( ) 날마다 쓰기에 편한 훌륭한 글을 만  
 들어,  
 ( ) 세종(世宗) 임금께서는 저마다 배울  
 수 있고,  
 ( ) 이 글을 훈민 정음이라 하였다.  
 ( ) 전 국민(國民)에게 쓰게 하시니,
- 【19】( ) 우리도 일본의 압박에서 풀리어 놓이  
 게 되었으니,

- ( ) 힘쓰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 ) 따라서 행복된 생활(生活)을 할 수 있  
 도록  
 ( ) 마음 대로 우리 글을 배우고 담아서  
 문화를 높이고,
- 【20】( ) 걸 최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  
 라.  
 ( ) 걸이 검은들 즉조차 검은소냐.  
 ( ) 가마귀 검다 하고 백로야 웃지 마라.
- 【21】( ) 사람이 되어 나서, 웁지 곧 못하면,  
 ( ) 마을 사람들아 웁은 일 하자스리  
 ( ) 마소를 갖 곳갈 씨워 밥 먹이나 다르  
 라.
- 【22】( ) 4252 년 3월(三月) 1일(一日)에  
 ( ) 독립 선언을 파리 강화 회의에 통고  
 (通告)하게 하였다.  
 ( ) 일본 정부(政府)에 선언서와 결의문  
 (決意文)을 전하게 하고,  
 ( ) 한 편 비밀히 독립 선언서를 인쇄하  
 며, 사람을 일본으로 파송(派送)하여  
 ( ) 민국 대표 손 병희 등 삼십 삼인의 명  
 의(名義)로 독립 선언을 하기로 하고
- 【23】( ) 둘째는 교묘한 전술(戰術)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 ) 산것이 싸움에 이기자면, 첫째로 우수  
 한 무기를 갖추야 하며,
- 【24】( ) 글을 가르치기를 하루도 결하지 아니  
 하다가,  
 ( ) 오직 학문에만 힘쓰고  
 ( ) 퇴계 선생은 늙도록,  
 ( ) 일흔 살 되는 십이월에 고요히 그 일  
 생(一生)을 마치셨습니다.
- 【25】( ) 공양왕을 쫓아 내고, 이 성계를 왕위  
 에 오르게 하니,  
 ( ) 조 준(趙浚), 정 도전(鄭道傳) 등 대  
 신이,  
 ( ) 공양왕 4년(3725) 7월 16일에  
 ( ) 이가 곧 근세 조선의 태조이다.

# 동화 정이의 구름



동원.  
그림 © 김의환

정이 집 뜰에는 코스모스, 백  
 일홍, 채송화.....이런 화초가  
 많았습니다. 어느 더운 날 정이  
 는 우물 물을 길어서 세수를 한  
 다음, 그 물을 수채에 버리지  
 않고 정이가 늘 가꾸는 화초밭  
 에다 끼얹어 주었습니다. 우물  
 옆에 갇혀만 있던 물은 밝고  
 넓은 바깥 세상엔 나오게 되어  
 속이 시원하였습니다. 더구나  
 착한 정이의 귀여운 얼굴을 씻  
 어 준 것이 즐거웠고, 세수를  
 해 준 뒤에는 더러운 수채 구  
 멩에 들어 가지 않고 꽃나무들  
 의 목을 추겨주게 된 것이 기뻐  
 습니다.

더운 여름 햇볕은 화초 밭에  
 뿌려준 물이 흙 속에 스며 들  
 거도 전에 자꾸 말려 버립니다.  
 세수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수증기로 변하여 높은 공중으로  
 훨훨 떠 올라 가게 되었습니다.  
 “아, 재미 있다. 재미 있다.”  
 하면서 수증기는 좋아 하였습  
 니다.

동네 집이 차츰 차츰 작아지

고 높은 산도 눈 아래 엷드려 버  
 립니다. 한참 동안을 올라가려  
 니까 찬 공기가 몸에 닿았습니  
 다.

“아아, 시원해라.”  
 이렇게 중얼거리는 수증기는  
 저도 모르는 새 구름이 되어 버  
 린 것이었습니다. 하얗고 조그  
 마한 종이 구름이기는 했지만  
 구름은 차츰 차츰 크게 자라갔  
 습니다. 뒤에서 따라 올라온 수  
 증기들이 한데 어울려서 큰 구  
 름총이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  
 니다.

정이네 집에서 올라온 구름은  
 하늘을 둥둥 떠다니었습니다.  
 우물 속에서는 늘 동그랗고 좁  
 은 하늘만 바라보다가 한 없이  
 넓은 하늘을 떠돌아 다니면서  
 산과 들, 시냇물, 동네, 기차길  
 이런 아름다운 경치를 내려다  
 보게 되니 참으로 이 세상에 다  
 온 보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구름은 바람을  
 따라 다니게 됩니다.

“구름아, 내게 업혀라.”  
 “바람님, 어디로 가실래요?”  
 “오늘은 저 한강 쪽으로 가  
 봐야겠다.”  
 “먼멀 갔다가 여기 다시 돌  
 아오지 못하게 되면 어쩌려  
 우?”  
 “아무데면 어쩌나? 우리는  
 고향이 없단다.”  
 “그래도 나는 여기 다시 와야  
 해요.”  
 “누가 기다린단 말이나 편한  
 생각이지.”

바람은 구름의 마음이 어떡  
 고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했  
 습니다.

그렇지만 구름은 저기 적은  
 산 아래 있는 조그마한 집... 화  
 초 밭이 있는 정이네 집이 내집  
 같이란 생각되어서 먼데로 떠나  
 버린다는 것은 도무지 생각도  
 할 수 없는 싫은 일이었습니다.

바람은 구름을 데리고 한강이  
 잔잔히 흐르고 있는 노량진 쪽  
 으로 날아갔습니다. 가면서 구  
 름은 바람에게 얘기를 걸었습  
 니다.

“바람님. 당신 집은 어디 있었  
 니까?”

“내게는 집이 없다. 그러나  
 가는 곳이 다 내 집이야... 그  
 래 네게는 집이 있니?”

“우리 집은 정이네 집이에요.”  
 이 말을 듣자 바람은 픽웃으  
 며,

“정이네 집? 아니야, 너도  
 집이 없는거야. 정이가 너를  
 알기나 하겠니. 편한 생각 말  
 아라.”

구름은 이말을 들으니 섭섭하고



어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이가 나를 길러 준 것같은데...나도 정이의 얼굴을, 그 이마랑, 코랑, 볼이랑, 목이랑, 모두 깨끗이 씻어 주고, 정이가 정성 드려 기르는 꽃나무들의 다른 목을 축여 주기까지 했는데 나를 모를 리가 있을까...

구름은 한강 흰 모래밭 위에 서 정이네 마을을 바라 보았습니다. 그러나 떨어져 정이의 집은 보이지도 않았습니

다. 한강 철교와 인도교 위에는 기차 전차 자동차들이 분주히 지나 다니고, 강물에는 헤엄을 치며 노는 아이들도 많이 보입니다.

구름이 강 위에 높이 떠서 놀고 있는데 어디선지 기운 센 바람이 달려 왔습니다. 아까 구름을 데리고 온 바람과 서로 버티고 힘을 겨루는 듯 하더니 두 바람은 합쳐서 남쪽으로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정이집 구름도 바람을 따라 남쪽 하늘로 날려 갔읍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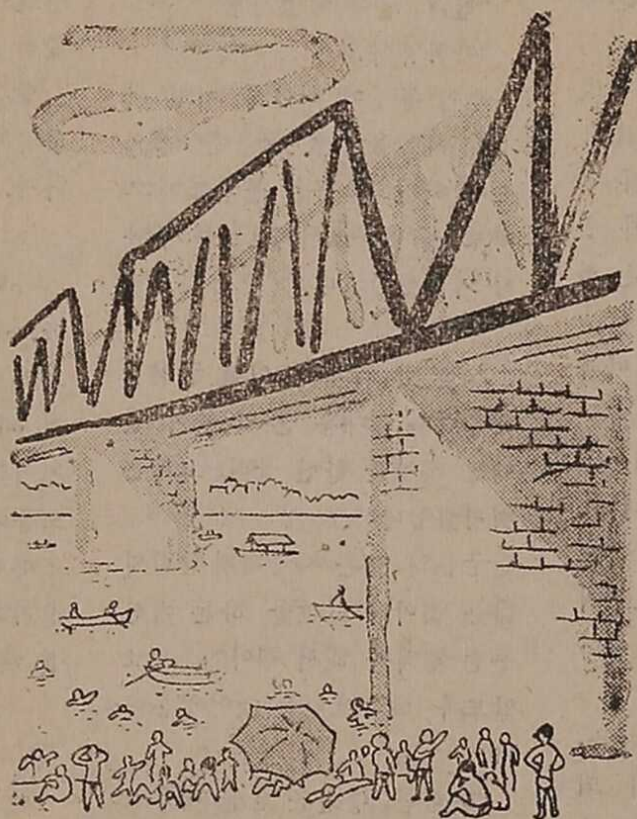
산을 넘고 들을 건너 구름은 낫선 시골로 떠다녔습니다. 푸른 벼가 물결치는 넓은 벌판, 수숫대가 자라는 콩밭 조개껍질 울 덮어 놓은 것 같은 초가 집들이 있는 시골의 하늘을 돌아다니면서 구름은 여러 가지

양으로 제 몸을 변해 보았습니다.

푸른 하늘에 점점이 늘려 있는 비늘 구름도, 모한 산봉우리 같이 피어오르는 흰구름도 되어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시꺼멓고 험상궂은 얼굴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양을 변하는 것도 구름이 제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과 공



기의 차고 파는 것과 햇빛을 받는데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먼 곳을 돌아다닌 구름은 고향 생각이 났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이의 집이 있는 그 마을이 점점 더 그리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님 내 고향으로 가고 싶어요.”

“고향이 별 수 있나. 하늘은 다 같은 길. 새로운데로 찾아다니며 새로운 걸 보고 사는 게 재미있지.....”

“그래도 나는 고향 하늘에 떠서 살고만 싶어요.”

구름은 정이네 동네에 가서 정이 집 우물 터를 내려다 보고 싶고, 전에 물로 있을 때 우물 물을 길어 내어 얼굴을 씻은 정이를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늘에는 얼마든지 있는 구름. 고향엘 간들 정이가 너를 알아보고 눈여겨 쳐다보기나 할줄아니?”

바람은 딱하다는 듯이 구름에게 타일르는 말투로 이런 말을 했고, 나중에 그런 쓸데 없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고 나와 같이 이 세상 구경이나 다니자고 하였습니다.

구름은 슬픈 얼굴을 하고 시골 마을을 내려다 보고만 있었습니다.

○

그날밤, 바람은 가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건 또 어딴 바람인가?”

“어쩐지 벼가 될 것 같은데.....”

결에 모인 구름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름이 찬기운을 만나면 비가 되기 쉽고, 비가 되면 그 곳에 떨어져 내려가야 합니다.

“여기서 떨어지면 고향엘 갈 수 없다.”

정이 구름은 걱정을 하면서 그날 밤을 새웠습니다.

날이 밝아 자세히 살펴보니 구름은 한강 근처에 다시 돌아와 있었습니다.

“오오, 서울로 다시 왔구나.” 구름은 좋아서 춤이라도 출 것 같았습니다.

그 날은 바람도 잔잔하여 서울 하늘을 이리 저리 돌아다니다가 저녁 때 가까워서 구름은 정이네 동네 근처로 가게 되었습니다.

구름은 기뻐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차츰 차츰 정이의 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포푸라 밑에 우물이 보입니다. 정이가 우물 가에서 무언지 췌고 있는 것도 보입니다.

그러나 정이는 이 쪽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를 알아 불 리가 없지...” 구름은 몹시 섭섭하였습니다. 아무튼 바라보아 주기만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정이는 도무지 서쪽 하늘을 쳐다 보지도 아니 합니다.

저녁 해가 산을 넘어간 다음, 구름들은 일제히 저녁 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이의 구름은 제일 새빨간 옷을 입었습니다.

저녁 햇빛을 받아 잔솔밭 위, 푸른 하늘에 빨간빛 고은 옷을 입은 구름들은 아름답기 짝이 없습니다.

정이는 저녁을 먹고 나와 놀다가 붉은 놀을 바라 보았습니다.

“아, 참, 어찌문 놀이 저렇게

도 고울까?”

정이는 아름다운 저녁 놀을 정신 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 다. 정이 구름은 저를 보아주지 나 않나 하고 더 붉은 빛으로 라는 듯 빨개졌습니다.

이윽고 햇님은 남은 햇빛을 모조리 걸어 가 버렸습니다. 햇 빛이 없어지면 빨간 놀도 살아 저서 식은 햇빛으로 변해 버립 니다.

“언니, 놀이 죽었지?”

“아까워라.”

정이 동생이 정이와 이런 얘 기를 하였습니다. 구름은 검은 스레 해진 제 몸을 돌아보며 그 래도 정이가 보아준 것을 무한 히 기뻐했습니다.

○

그날 밤, 구름은 이런 궁리를 했습니다. 다음 날 또 놀이 될 때엔 정이를 한번 불러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구름의 말은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것이니까 말을 하는 대신 무슨 형식을 해서 정이가 보고 알도록 해 보려는 것이었습니다.

“바람님, 당신은 글을 배우셨 어요?”

“흥! 글은 알아 뭇한담. 그 런 것 배우지는 않았지만 아 이들이 배우는 건 많이 보았 으니까 대강은 알지.....”

“그럼 바람님, 내게 좀 가르 쳐 주세요.”

“무슨 글을 배우련?”

“정”사자, “아”사자, “나”사 자, “는”사자, “너”사자, “의” 사자, “구”사자, “름”사자,

“이”사자, “다”사자, 이렇게 만 우선 배우고 싶어요.”

“어유.....웬 그런 걸 다 알아 서 뭘하나...허지만 내말 잘 들으면 가르쳐 주어도 좋지.”

그 날부터 구름은 글자를 배 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사자, “아”사자 우선이 두자를 배웁 니다.

내일 저녁엔 놀이 서면 정이 의 구름은 제 몸을 글자 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늘에서 정이를 불러 보려는 것입니다.

빨간 글자로 “정아,” 이렇게 하늘에다 써 보려는 것이었습 니다.

○

바람은 아는 것이 많았습니 다. 우물 속에서 나와서 수증 기가 되었다가 이내 구름이 되 어 바람을 따라다니기만 하는 정이의 구름은 아직 세상 일을 모릅니다.

바람은 구름에게 여러 가지 신기하고 재미 있는 세상 얘 기를 해 주면서 무척 귀여워 해



주었습니다.

빨리 달려갈 때는 으레 구름을 업고 다녔고 산허리나 공중에서 잘 때면 곁에다 눕히고 또 탁또탁 재워 주었습니다.

구름이 글을 배우기 시작한 날, 바람은 못마땅한 듯이 타일렀습니다.

“헛수고야. 글 같은 건 사람이 배우는 거지, 구름이 글을 배워 어디다 쓴단 말이나? 아예 그만 두자.”

“바람님! 가르쳐 준다고 하시고 왜 탄 소리를 하세요?”

“글씨, 쓸데 없는 걸 왜 헛수고를 하니?”

“그래도 배울해야요. 글 배워서 뭐 밀지나요?”

바람은 구름의 결심이 꺾이지 않는 것을 알고 하는 수 없는 듯이

“그럼 어디 배워봐라. “정”사자, “아”사자를 배운됐지?”

바람은 손 바닥에다 손가락으로 글자를 써 보여 주며

“닿소리 글자 ㅈ에다 홀소리 글자 어를 붙여서 저, 게다가 받침 ㅁ을 붙여 “정”이 된다. 알겠니? 다음 아ㅈ자는 ㅁ에다 아를 붙여서 그냥 아... 어 더 따라 읽어 봐.”

구름은 무슨 신기한 것이라도 처음 발견한 듯이 좋아하였습니다.

“읽을 줄은 알았으니 이제 쓸 줄만 알면 그만인걸요...” 하며 열심히 쓰기 연습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쓸줄만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글자를 배운 다음에는 구름은 제 몸을 글자 모양으로 변해보기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 몸뚱이를 여러 갈래로 내어서 꼬부리고 접고 하여 “정”사자와 “아”사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글자는 될 듯 될 듯 하면서도 잘 되지를 앓았습니다.

“정”사자가 “정”사자 같기도 하고 잘 못하면 “정”사자 같이

도 되었습니다.”

구름은 밤에도 자지 않고 혼자서 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내일 저녁, 날이 서게 되면 서쪽 하늘에 뚜렷히 써 놓으려는 글자 두자! 구름은 잠을 자지 않고 늦도록 글씨 공부를 하고 있는데 바람이 자다말고 눈을 떴습니다.

바람은 자는줄 알았던 구름이 혼자 글씨 공부를 하고 있는 걸 보자, 섭섭한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구름아, 왜 자지 않고 이러니? 너 맘이 변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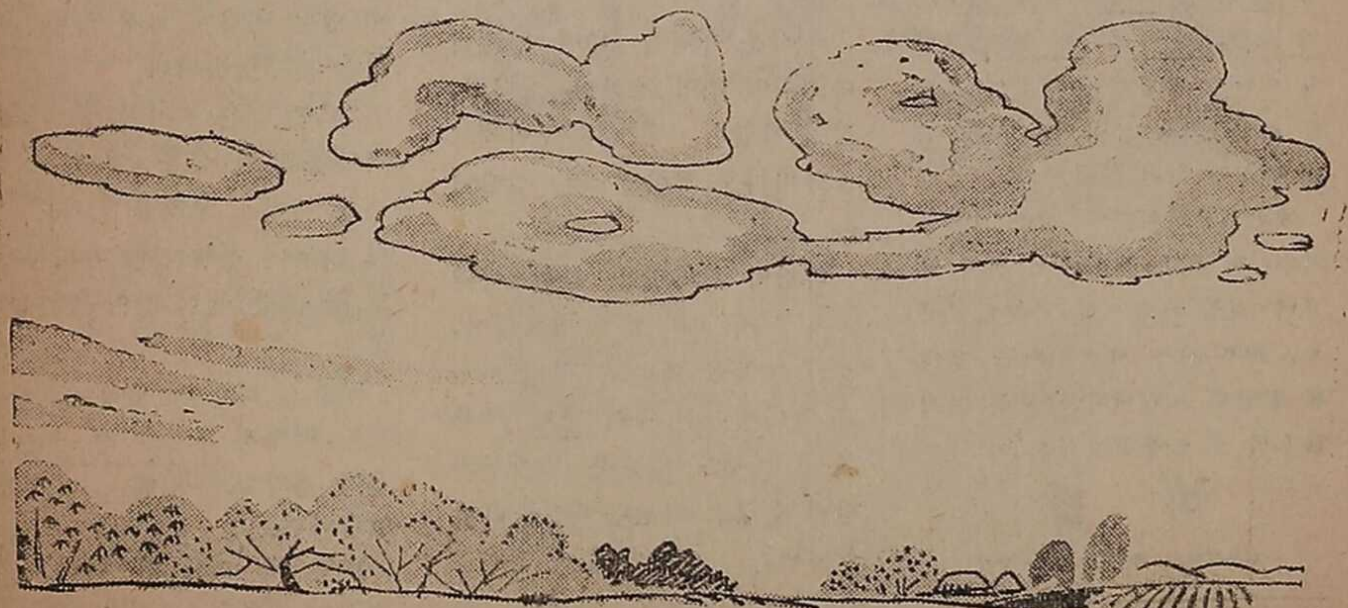
“곧 자겠어요.”

“구름아, 너는 내 곁에 붙어 다니면서도 탄 생각만 하고 있지? 그럴라면 차라리 어디고 멀리 가버려라.”

하면서 바람은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자리에 엎드려서는 자는 듯 말이 없습니다.

“바람님!”

구름은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모르며 저도 가만히 자리에



누었습니다.

바람은, 자는지 안 자는지 눈을 감고 누어 있는 구름을 실눈으로 훑쳐보며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고향을 잊지 못하는 어린 구름도 멀리 화려하고 신기한 판세상을 구경시켜주면 이까짓가난스런 고향이나 잠깐 만나 알게 된 아이쯤 쉽사리 잊어버릴 수도 있으리다. 내일 아침엔 멀리 떠나라로 가 버릴까보다.

바람은 이런 생각을 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

다음 날도 구름은 아침부터 하늘에서 글씨 쓰기 연습을 했

초학생 임시중간

## 소년 소설 특집

남은 것을 나누어 드립니다

우리 "초학생" 잡지가 작년 여름에 낸 "소년소설 특집" 남은 것이 이즈음 지방에서 올라왔습니다. 이 책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정 인택, 김 동리, 김 영수, 김 요섭, 최 병화, 이 원수, 그밖의 여러 선생님들이 힘들여 지으신 소설 (계속이 아니라 모두 끝난 것)이 실려 있습니다.

국판 70 페이지에 값은 100원이고, 이 책은 책사에서 팔지 않으니 직접 안철으로 주문하십시오. 20부 이상 주문하시는 분에게 할인해 드립니다. (모두 많지 않으니 곧 주문하십시오)

## 아 협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가

입니다. "정아"이 글자의 모양이 서투르나마 푸른 하늘에 흰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멀리 구름종이들 사이에 쓰여진 이 글자는 누가 자세 자세 바라 보기 전에는 알아보지 못할 것입니다.

구름은 멀리 정이네 집을 내려다 보았으나 정이는 나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 저녁놀이 되어 빨갱게 타는 빛으로 쓰여지면 그 때는 동네마다 어린아이 할 것없이 모두 서쪽 하늘을 우러러 보며 이상한 구름 글자를 읽어보게 되겠지요. 그 누구 보다도 정이가 그 글자를 읽어 보고 얼마나 놀라고 또 좋아할까? 아아, 어서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구름이 저녁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만 주빋 주빋한 산 머리를 싸고 있던 검은 구름들이 이편을 향해 달려옵니다.

무서운 속력을 내어 달려옵니다. 휘이 휘이 소리가 납니다. 밝던 하늘이 금새 어두어지고 소낙비라도 쏟아질 것 같습니다.

바람이 휘파람을 불며 어서 가자 어서 가자 하고 달리니까, 정이 구름을 데리고 있던 바람은 옳다했다는 듯이 정이 구름의 손을 잡고 달리는 바람들과 함께 동쪽으로 달음박질을 하였습니다.

"어더로 가요? 바람님. 난

여기 있을 테예요. 난 여기 있을 테예요."

정이의 구름은 미친 듯 바람에게서 빠져 내려 하였으나 바람은 들은척 만척 구름의 손목을 꼬옥 잡고 동쪽으로 번개같이 달아납니다.

시꺼먼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그 검은 구름 아래는 햇빛이 가려서 어둑컴컴하였습니다. 정이 구름도 빛같이 꺼매지고 여러 구름들과 뒤섞이어 누가 누군지 알아보기도 어렵습니다.

뚝, 뚝 빗방울이 듣기 시작합니다. 높은 데 있던 구름들이 비가 되어 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은 쉬지않고 달려옵니다. 비는 자꾸 쏟아집니다.

정이의 구름은 비가 되어 떨어지지 않는 것만 다행으로 생각하며 바람이 가는 곳으로 눈을 꼭 감고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얼마를 왔는지 밤 하늘을 달리다가 높은 산들이 앞을 막고 서 있는 데까지 와서 바람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쉬고 내일 아침엔 이 산을 넘어 못가본 나라로 구경을 가자."

고 하더니 산허리에 자리를 잡고 곧 코를 골며 잠이 들었습니다.

구름은 바람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떻게 도망을 갈 수가 없을까 생각했으나 별 도리가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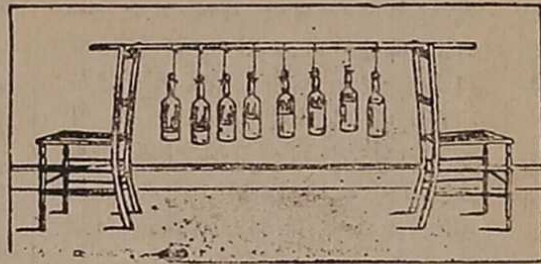
내일이면 어느 먼 나라로 끌려가야 할지? 그리고 언제나

# 재미 있는 놀이

## 헌 병으로 악기

(만들기)

재미있고 신기한 악기를 헌 디 두병이나 사이다병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악병으로도 물론 됩니다. 그러나 병은 모두 크기가 같아야 합니다. 병이 준비 되었으면 막대기를 그림에서와 같이 의자 둘 사이에 걸어놓고 서로 너무 가깝게 부딪치지 않게 하고 느슨하게 매달아 둡니



다. 그 다음엔 얇은 소리가 나는 데는 물을 많이 넣고, 높은 소리가 나는 병은 물을 적게 넣습니다.

음정 (音程)을 맞추려면 막대기로 두드립니다. 막대기는 대로 만든 자가 제일 좋습니다. 좀 애

쓰고 참고 주의해서 연습을 하면 음정 (音程)을 그저 보통으로 맞

출 수 있게 됩니다. 자!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 기묘한 악기를 자 끝으로 칩시다. 물론 병은 튼튼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치면 깨지고 말게요. 그러나 그렇게 세게 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처음에는 단음 (單音)으로 치지만 나중에에는 자 두 개를 가지고 팔리 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로 칠 적에 병이 서로 부딪치지 않도록 매달아야 합니다. 이 겹에서 만든 악기를 가지고 즐겁게 놀시다. 병이 깨어져서 틀이 호를 염려가 있으면 밖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쩌.....

구름은 아득하고 먼 고향의 정이 생각이 다시 새로워져서, "정아, 정아" 불러 보며, 정처 없이 떠나게 된 신세를 슬퍼하였습니다.

정이의 구름이 그 후 어디로 가서 어떻게 지냈는지?..... 구름이 보고 듣고 기뻐하고 슬퍼한 여러 가지 일은, 이다음에 구름을 맞나 얘기를 들어 보아야 알 것입니다.

### ★ 우리 들 작품 ★

# 아름다운 회려강산

인천 신중교 5의2 이 용 환



마산 성호교  
3년  
이준명

소 학생  
푸우폰표  
No. ;

"푸우폰표"는 잘 모아두었다가 12장이 되거든을 12월에 보내십시요.

소 학생  
독자증  
3월치

"애독자 상라기"에 오려 붙여 보내십시요!

# 소학생의 클럽

▲기자 선생님, 문안드립니다. 제해 북 많이 받으셨습니까? 우리 "소학생"도 이제는 한 살 더 먹었군요? 그런데 궁금한 것 한 가지... "아담손 할아버지"는 어느 선생님의 그림입니까? (인천 송철동 엄 기준)

△"아담손 할아버지"는 야콥손이라고 하는 서양 만화가가 그린 것입니다. (기자)

▲여러 선생님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월치부터 매달 꼭꼭 사 보아서 이제는 "소학생"의 큰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소학생"이 12월이나 있으니깐 여간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1월치에 "쿠우폰"상이라는 것을 새로이 만드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번에는 꼭 일등을 타보려고 합니다. (서울 매동교 이 정우)

▲아협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자가 된지도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1월치 "소학생"에 애독자를 위한 새로운 제책, "쿠우폰표"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소학생"에 인쇄된 "쿠우폰표"를 가위로 잘라 12장을 보내는 것입니까? 선생님들이 상으로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충남 천안 성환교 이 려중)

△"쿠우폰표"에 대해서는 "소학생" 1월치에 자세히 발표되어 있으니 여기에는 간단히 요점만 대답하겠습니다. 즉 같은 달치를 여러 장 모아도 좋으나, 그것을 금년 12월에 가서 한꺼번에 보내실 것. 그리고 "쿠우폰"이라고 따로 상으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치 "소학생"에 박혀서 나오는 표를 오려서 다른 종이에다 나란히 붙여 보내시는 것이 제일 좋

겠습니다. (기자)

▲여러 기자 선생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척척박사 깔깔박사 여러 가지 연구하느라고 바쁩니다. 요번 정월치에 놀이하자는 재미있었습니다. "잃어버리다"와 "잊어버리다"는 어떻게 다른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속담 혹은 시조 같은 것도 많이 좀 실려주세요. (서울 종로 5가 고 기덕)

△애독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잃어버리다"는 물건을 잃었다는 뜻이고, "잊어버리다"는 기억을 못한다는 뜻의 말입니다. (기자)

▲여러 기자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그런데 이 "소학생"속에 있는 소설 중에 정 인택선생님이 쓰신 "이름 없는 별들"이라는 제목은 무슨 뜻인지 자세히 알으켜 주세요. (서울 재동교 홍 기남)

△끝까지 다 읽어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기자)

▲편집부 여러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소학생"을 더 유익하고 재미 있게 만드시기에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저는 중학생이 됐지만 역시 "소학생"을 사랑합니다. 왜? 유익하고 재미 있기 때문입니다.

12월치 "소학생"은 전부 웃음보따리였습니다. 그런데 "만들고 나서"의 심 일서 선생님이 어느 분이신지 처음이라 모르겠으니 기자 선생님 알으켜 주십시오. (경기 사범 김 학성)

△"소학생"을 그렇게 애독하신다니 기쁩니다. 심 일서 선생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심 은정 선생님이십니다.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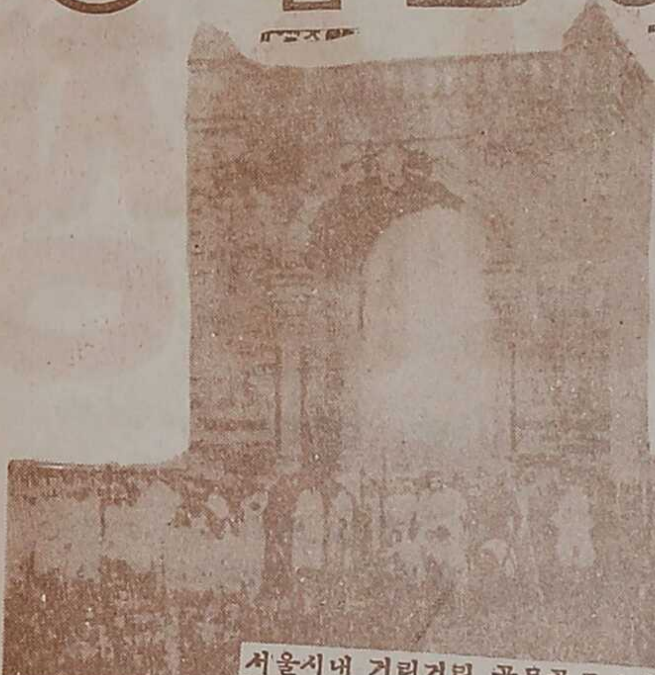
★푸릇 푸릇 새싹이 돋아납니다. 모든 생물이 기지개를 켜며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의 팔 다리에 새로운 힘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왔으니,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31년 전, 이달 초하루. 삼천리강산 방방곡곡에서는 성스럽고 우렁찬 종소리가 울리었습니다. 대한 완전 자유 독립의 종소리가... 지금도 귀에 은은히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때, 피를 뿌리며 쓰러지신 선열들에게 보답하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홍 중인 선생님의 "1919년과 3월 1일"을 다시 한 번 읽고 조용히 생각해 봅시다.

★"쿠우폰" 상품은 이달치에도 알려드리지 못해서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꼭 궁금하실 테이지만 발표가 있을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십시오. 어쨌든 여러분이 깜짝 놀라실만한 상품을 드릴 것이라는 것만은 미리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심 은정)

4278年 3月 1日發行  
**소학생 · 값 150 원**  
**3월치★제 76 호**  
 總發行所 尹石重  
 田淵人 金關斌  
 發行所 兒協  
 4280年 9月 30日 發售 第249號  
 서울 鍾路 2街 82 永林빌딩  
 總販賣 乙酉文化社  
 서울 鍾路 2街 82  
 振替 서울 2706番  
 電話 3970番  
 3492番  
 0187番  
 서울신문社 印刷局  
 4280年 9月 31日 發售 第14號

# 3. 1 운동 우리는 이렇게 싸웠다!



서울시내 거리거리 골목골목에서

各地

丁巳年五月初二日未巳曆陰

이날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일... (Text describing the events in Seou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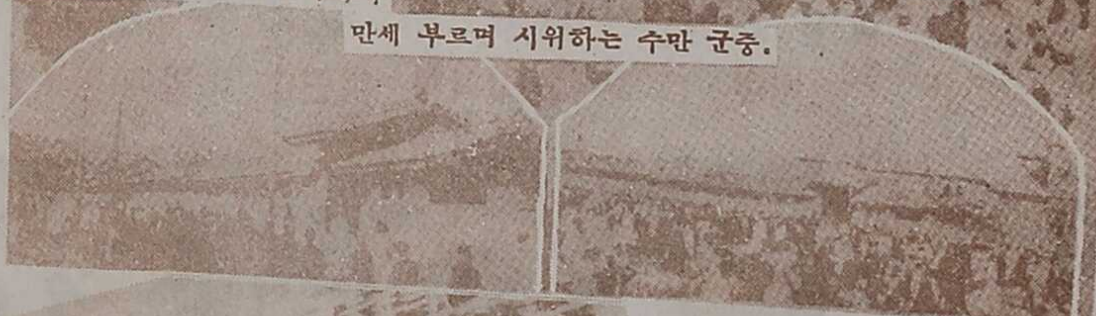
조양인 소모가... (Text about Jo Yang-in)

이날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일... (Text describing the events in Seoul)



선병희 전생

만세 부르며 시위하는 수만 군중.



이날 서울 시내에서 일어난 일... (Text describing the events in Seoul)



事件 近畿의 각 지방에서

그 때 왜놈 경찰은 우리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를 이렇게 죽였다.



○바닥에 갠 신문은 그 때 왜놈의 기관지 "매일신보"를 사진 찍은 것

40

저절로 공부가 잘되는

# 소학생 연습장

서울 학습 지도회 엮음 \* 아협 발행

남보다 지치지 않게, 남보다 뛰어나게, 부끄럽히, 차근차근, 교생 앓고, 실수 없이, 공부를 잘 하여 성적을 올립시다! 다 같이 우수생이 됩시다! 학급을 빛내고, 학교를 빛내고, 민족을 빛냅시다!

이 연습장이 바로 여기 필요한 책입니다!

학년 별 제 2 학기치 총연습 ☆발매중☆

입학  
준비

## 50회 완성

중학교 입학이 막도한 여러분! 이 책은 시작하여 50일이면 모든 학과에 대하여 충분히 준비가 되는 책입니다. 더도 말고 하루 한 번씩 단 총실히 공부하십시오. 그리고 마음 놓고 윗학교에 들어갈 준비를 합시다.

중학교 들기 위한 **소년상식** 3,000문답집

이 책을 아직 못 가진 분이 계십니까? 또 다 팔리기 전에 어서 구하십시오.

풀빛집 엮음★수정 제3판 발매중★값은 500원

아협 발행 · 文章閣 發賣 (전국 서점마다 팔고 있습니다)

연거 88-46